

배움을 즐기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

JIKS

LETTER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제 51호



CONTENTS

- 02 교장선생님 말씀/교감선생님 인터뷰
- 03 선생님 인터뷰
- 04 교생선생님 인터뷰
- 05 교생선생님 실습후기
- 06 선배인터뷰
- 07 선배인터뷰
- 08 성균관대입시설명회/고려대 대학탐방 인터뷰
- 09 중학교·고등학교 학생회/
SMP Negeri 2 Purwokerto 본교 방문
- 10 과학독후감 최우수작
- 11-12 2018 창의력 페스티벌
- 13 파이(π)데이/9학년 스쿨 트립
- 14 10학년 스쿨 트립/11학년 스쿨 트립
- 15 중학교 Sports Day
- 16 JiKS 양케이트/한글맞춤법
- 17 추천&소개 영화
- 18 추천 인니맛집/평창동계올림픽
- 19-21 English Writing Competition
- 22 영어기사/인니어기사
- 23 인니어말하기대회
- 24 신문반 후기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AKARTA INDONESIA KOREAN SCHOOL

Think and Write!

지난해 작고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부의 물결은 기르고 키우는 ‘Growing’에서 만드는 ‘Making’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Thinking’으로 발전한다.”고 했다. 즉 인류의 경제(부) 발전이 동식물을 키우던 농업에서 물건을 만드는 산업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생각(思考)’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말이다. 아니 모든 산업과 문화, 예술도 전부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모차르트의 생각이,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의 생각이, 우리 문화유산엔 한국인의 생각이, 프랑스의 문화유산엔 프랑스인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바로 글쓰기이다. 하버드대학에서 1977년 이후 사회에 진출한 40대 졸업생 16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조사했는데, 90% 이상이 ‘글 쓰기’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버드대에서는 1972년부터 신입생 대상 글쓰기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20년간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낸시 소머스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기 분야에서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글쓰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17.6.5.). 공대생이든, 사회대생이든 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 줄 알아야 논문도 쓰고 연구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해선 관련 자료를 찾아가며 해당 주제의 배경은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발전과정,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며 나만의 아이디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바로 글쓰기이다. 관련 자료를 읽으며 생각한 것이 글을 쓰면서 바뀌기도 한다. 정리하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수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하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교장 백우정

어를 써야하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읽으며 생각한 것이 막상 글을 쓰면서 바뀌기도 하고, 쓴 글을 정리하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수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연구해야 하거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은 살아가면서 4차 산업은 물론 5차, 6차 산업혁명 시대를 경험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지금 5차 산업혁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다양한 생각을 해보면서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문득 떠오르는 간단한 아이디어도 좋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시간을 갖고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엔 생각하고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교감 김창학

이번 학기에 새로 부임하신 김창학 교감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와, 직스의 첫인상, 아쉽지만 1학기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교감 선생님이 직스학생들에게 남기는 조언, 마지막으로 신문반으로 삼행시를 부탁하며 교감 선생님의 유머와 재치를 알아보았다.

Q: 직스로 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국제 학교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외에 33개의 국제학교가 있는데, 저의 교직 마지막을 해외 학교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서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Q: 여러 해외의 국제학교 중에서 자카르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가 평소에도 국제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자카르타에서 교감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Q: 직스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A: 학교에 들어오면서 처음 느낀 것은 ‘정말 괜찮은 학교구나, 잘 꾸며놓은 학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첫인상은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카르타로 오기 전 서울에만 오랜기간 있었는데 서울 학생들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학생다운 학생들임을 느꼈습니다.

Q: 예전에 다니셨던 학교와 저희 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나요?

A: 두 학교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물론 서울 학교들의 선생님들도 열심히 수업을 하시지만 여기 선생님들은 서울의 선생님들보다도 업무가

너무나 짧았던 만남

[11226 안세인 · 11421 권혜준]

많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순수한데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한국의 학생들에 비해 공부의 양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한국에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조금 더 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학교의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한국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 공부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직스 선생님들이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직스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A: 직스 학생들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학생들에게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직스 학생들은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한국의 주인공으로서 성장해야되기 때문에 정체성을 잊으면 안됩니다. 다른 것들은 부족하면 앞으로 더 채워나갈 수 있지만 정체성은 잊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체성 교육을 많이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신문반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A: 신선하게 / 문화적 충격을 잘 해결해가면서 / 반듯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교감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난 후 교감 선생님의 직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직스를 떠나시는 아쉬움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우리에게도 전해졌다.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감 선생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후 직스가 한층 더 발전한 것 같다. 앞으로 가시게 될 학교에서도 직스에서의 추억을 잊지 않고 항상 열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란다.

김은경 선생님을 아시나요?

[9127 조희진 · 9223 성다연]



올해 우리 학교에 오신 영어 선생님이로 8, 9, 12학년을 담당하시는 김은경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선생님의 밝은 성격과 재치있는 답변으로 즐겁게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Q. 인도네시아와에서 느낀 제일 큰 차이점은?

A. 한국은 보행자들이 친숙한 도로라면, 인도네시아는 걷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보행자들을 위한 인도가 없어서 그게 제일 큰 불편한 점이고 차이점인 것 같아요.

Q. 인도네시아에 온 가장 작은 계기와 가장 큰 계기는?

A.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작은 이유는 여행 다니기 좋은 새로운 환경을 느끼고 싶어서요. 사실 발리가 옆에 있어서 왔어요. 너무 티 나게 말했나?

가장 큰 계기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중 하나가 외국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Q. 인도네시아 말 중 가장 좋아하는 단어와 그 이유는?

A. 프리마 카시(Terima Kasih)요. 이유는 제일 유용해서요.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먼저 배운 말이라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많았어요.

Q. 한국 학교와 직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A. 선생님은 항상 남학교에서만 근무해서 그런지, 남녀공학인 이곳에 왔을 때 모두가 성별 상관없이 큰 가족 같아서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학급 수가 많지 않아서 서로 사이가 긴밀하고 서로에 대한 인정, 존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공동체 문화가 잘 되어있고 다양성의 존중을 잘 하는 모습이 직스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멋있었어요.

Q. 귀국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지, 있다면 왜?

A. 친숙한 것들이 그리울 때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어 회를 먹고 싶을 때 한국 생각이 잠깐 났어요.

Q. 별명이 있으신가요?

A. 많아요. 장문복, 쿵푸팬더 맨티스, 아바타 나비족,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Q.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A. 관대하고 예쁘다. 'Gorgeous'하고 'General'한 것이 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Q. 직스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A. 직스에 올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이 수업 진도에 맞추는 수업 말고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그게 가장 하고 싶어요.

Q.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해줬으면 하는지?

A. (질문) 어렵네요. 항상 아이들 편에서 생각하는 선생님? 그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Q. 각오 한마디?

A. 글썄요. "건강하자 행복하자",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시작하였지만 점차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쳤다. 김은경 선생님은 인터뷰 내내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서 즐겁다고 하셨다. 우리도 선생님과 수업 외에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선생님에 대해 더 알게 돼 재미있었다. 선생님 사랑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영훈 선생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231 홍은지 · 11328 조유리]

Q.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로 오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같은 환경에서 비슷비슷한 학생들과, 같은 내용의 수업들을 주로 하다 보니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자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 후에 교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국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해외한국학교 중에선 이곳이 학생 수도 많고 역사도 깊은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Q.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또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 계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12학년 세계지리 수업할 때도 이야기한 적 있는데, 한국에서는 기계가 하는 일들을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들이 대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거리에서 신호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한국에 비해서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전공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맞닥뜨리니까 기억에 남더라고요.

또 JIKS에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학교에 함께 다니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형제자매가 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점도 특이했어요.

Q.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아직까지 편한 점은 잘 모르겠고, 불편한 것들은 조금 있는데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해요. 첫번째로는 교통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아침에 생각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와야 되는 점이 조금 힘들어요. 두 번째로는 물을 아무거나 마시지 못하는 점이 불편한 것 같아요. 실제로 3월 말 즈음에 제가 물을 함부로 먹었다가 목이 안 좋아져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여기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선택과목이 많다 보니까 수업 과목이 많은데, 그 점이 힘든 것 같아요. 또, 7, 8, 11, 12학년을 가르치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7학년 수업하다가 12학년 수업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 외에는 딱히 불편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Q.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A. 교사로서는 유네스코 학교로 만들어서 국제학교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각자의 재능도 키우고, 이 지역에 적응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런 활동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과 함께 해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쉽게 하지 못했던 스포츠를 즐기고 싶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열심히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Q.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세요!

A. 처음에 이곳에 오기 전에는 국제학교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게 학교를 다닌다는 점도 잘 몰랐고요. 선생님이 지금 와서 느껴보고 생활해보니까 JIKS 학생들이 한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교생선생님
인터뷰

환영합니다. 교생선생님

[10226 이아림 · 10324 김예슬]

지난 5월 1일에서 25일까지 교육 실습 차원으로 교생 선생님들이 자카르타 한국국제 학교 (JKS)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생 실습을 마친 교생 선생님의 소감을 듣기 위해 김지희 영어 교생 선생님(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의 인터뷰를 진행 했습니다. 김지희 교생 선생님은 실습 기간 동안 9학년 3반 담임과 10학년 영어 수업을 맡으셨습니다. JKS 학생들을 가르치는 2주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교생 실습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A: 창페에서 우리 반 애들이 원래 개성 넘치고 까불까불해서 참여 안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참여해서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4반 수업 망했던 거보다 다이나믹할 수 없어요. 심지어 4반 수업은 두 번째 수업도 망했거든요.

Q: 직스에서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일은?

A: 쌤은 제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반 담임 애들이랑 상담시간을 가지지 못한 거랑 10학년 애들이랑 마지막 인사 제대로 못하고 사진도 못 찍은 것 같아요. 다시 가고 싶어요.

Q: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A: 아무래도 제가 교생이었기 때문에 참관할 때 보았던 모습보다는 더 집중도도 높았고 질문에 대해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교시 수업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조는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더 재미있게 해주지 못해 미안했어요.

Q: 교생 실습을 마친 후,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느낌은?

A: 원래도 어렸을 적부터 교사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항상 생각하였는데, 교생을 다녀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 덕분에 행복해질 수도, 학생들을 통해 슬퍼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일 크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작은 눈빛, 표정,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때 내가 교사 말고는 다른 직업으로 행복을 느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생실습을 통해 교사란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나 오히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더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Q: 직스의 교육 방식과 한국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 방식의 차이점은?

A: 가장 크게 차이점을 느꼈던 과목은 영어와 예체능 수업이었습니다. 우선 영어는 단순히 영어 시수가 한국 학교보다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문법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문법 수업이 따로 배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처럼 주입식으로 문법을 가르치기 보다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사회와 과학 과목을 영어로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또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과목을 영어로 배우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나 교사와 학생 모두 큰 어려움을 느껴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나 직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영어 사용을 최대한으로 돕고자 노력하였고 실제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매우 높았습니다.



Q: 학창시절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팁은?

A: 저의 경우는 공부도 노는 것도 둘 다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야간 자율 학습이 의무였기 때문에 10시까지 학교를 다녔고, 11시쯤 독서실에 도착해서 2시까지 공부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 후 집에 와서 씻고 3시에 잠든 후 6시~6시 30분 정도에 일어나는 매우 힘든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자연스럽게 저는 계속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친구들과의 교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몰래 자습을 빼고 친구와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밤늦게 돌아와서 새벽 2시가 넘도록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새벽에 친구와 밖에 나가 밤새도록 수다를 떠는 등, 저의 생활에 활력이 될 만한 자유시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만큼 열심히 놀았던 것이 지금 제가 학창시절을 즐겁게 기억할 수 있는 이유일 것 같네요.

Q: 대학교 학식은 소문처럼 맛있나요?

A: (웃음) 우리학교는 돈이 많은데 학생들한테 돈을 안 써서 생각보다 비싸고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맛있는 학식은 경희대나 외대를 찾아가시길 추천합니다).

Q: 같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면서, 수업시간 때는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색다른 모습이 있었나요?

A: 항상 담임반인 9학년 3반이 개성 있고 끼가 넘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체육대회 날 중학생 전체 앞에서 몇몇의 학생들이 춤을 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춤췄던 학생들 대부분이 우리 반인거예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또, 체육대회 때 각 반의 특성을 알 수 있었는데, 1반은 학생들이 매우 참하고 얌전해서 본인 반이 대회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자리에 한명도 빠짐없이 앉아 있는 게 너무 웃기고 귀여웠고, 2반은 개구쟁이들이는데 본인반이 경기하고 있으니 목청이 빠져라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반은 본인반이 경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붙붙이 흩어지고 없는 모습을 보며 확실히 개성 넘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실제 수업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라 더 재미있었어요.

Q: 교생으로서 임무를 마쳤을 때 든 생각은?

A: 사실 교생을 시작하면서 정말 다짐했던 것이 '아쉽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아쉬움을 안남기기는 힘들더라고요. 한명, 한명, 가르치는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려고 책상 앞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다 외우지 못했고, 우리 반 학생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자는 다짐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아, 참 아쉽다. 다시 한 번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직스 학생들을 만나 내가 행복해졌고, 나로 인해 학생들도 행복한 기억을 만들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Q: 우리 직스 중고등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A: 애들이 사랑해! 너희가 나한테 줬던 감동과 애정과 사랑은 정말 평생도록 잊지 못할 감사한 추억이 될 거야. 한 달 동안 너희 덕분에 많이 웃었고, 마지막 날엔 헤어질 생각에 많이 울었다.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칠 테지만 쌤과 함께했던 한 달의 기억이 부디 너희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뭐든 공부도, 친구와 노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해!! 항상 너희를 맘 속으로 응원할게. 정말 많이 애정하고 아낀다.

김지희 교생 선생님은 2주간, 짧은 시간 동안 우리 JKS 학생들에게 많은 애정과 충고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엄격하고 무뚝뚝한 교생 선생님이 아닌 친구 같이 친근하고 재미있는 선생님이로 '영어'라는 과목을 더욱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김지희 선생님이 JKS 학생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지희 선생님과 JKS를 방문해주신 모든 교생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사진 좀 보내봐.”

한국에서 나의 생사를 궁금해 하는 이들로부터 일 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진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곤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그제서야 SNS를 통해 근황을 알리는데 소홀해 있었음을 깨달았다. 문득, 그 행동이 타인의 눈을 통해 나의 일상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은, 스스로 주어진 하루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확신어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았다. 누군가 봐 주지 않아도, ‘살 만한 하루’였다는 충족감이 채워진 날들이 찬찬히 지나고 있었다.

‘살 만 하다’라는 감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뜻하진 않는다. 석연찮은 상황이 생겼음에도 감히 포기하려 들지는 않는 천진함을 볼 때 드는, 해볼 만하다는 마음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수업 시간에 예비뽑기 통이 마땅히 없자 A3용지 네 테두리를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깊이로 접어 만든 간이 접시를 사용했던 것. 화병이 없어 정수기용 물통 모양의 클레오 병에 물을 9부정도 담아 길에서 산 장미꽃을 꽂아 - 사실상 띄워 - 놓았던 것. 웃음을 터지게 한 것들은 누가 봐도 어설피지만 태연히 시도해보는 열정어린 마음이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직스)에서의 실습 기간은 충분히 살 만 했던 날들이었다. 날씨, 음식, 물가와 같은 생활 측면은 물론, 무엇보다도 직스라는 계기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게 했다. 직스의 학생, 교사, 현직인 근로자, 실습 동료. 이들은 각자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다기보다 서로 모자란 구석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초임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모호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생, 9명이라는 전례 없는 숫자의 실습생들을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받아야 했던 교사, 막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학교에 다시 적응해야 했을 학생들. 모두가 처음 맞는 낯선 상황이었음에도 누구 하나 당황스러움을 내색하지 않았다. 어색해도 담담히 서로를 마주해보려는 노력들이 쌍방으로 오갔다. 첫 대면이 기분 좋게 피로했던 이유다.

기분 좋은 피로감은 실습 3주차에 접어들어 실제로 수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즈음 가장 진하게 찾아왔다. 학생들이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어떻게 알아볼까 고민해보면서 결코 알 수 없음을 깨달았던 무렵이다. ‘교사가 애쓰는 마음’을 승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직업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느낌은 학생으로서 발을 들일 때와 상당히 달랐다. 파티나 세미나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장이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들어선 곳일지 몰라도,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한 계획 하에 들어가는 곳인 것과 비슷하다. 교실의 분위기와 질감은 꽤 소상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설계로부터 결정됐다.

특히 수업 시간 내 교사는 학생을 관객으로 둔 배우 같았다. 해당 수업을 성공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복돋기도,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기도, 때론 시청각 매체를 사용하기도 하며 적재적소에 균일한 모습으로 본인을 등장시켜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할당된 차시를 나가기 위해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소화력을 그때마다 확인해 속도조절을 하는 게 필요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꽤 어려웠다. 학생들의 우렁찬 대답은 종종 속이 비어 있기도 했고, 모두가 같은 자리에 밀줄을 긋는 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며, 눈앞에서 답을 확인한 쪽지가 등 뒤 칠판에서는 자유분방하게 붙어 있기도 했다. 일지 속에서 헤매던 기록을 보더니, 하루는 담당 교사가 웃으며 말했다. “학생들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건 몇 십년을 겪은 교사들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대학 교수들도 강의실에 들어갈 때 이럴까?” 아닐 거라는 답이 나왔다. 학생이 이해하는 정도를 고려하려는 의지의 유무가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인 듯 느껴졌다. - 내가 경험한 - 교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학생의 입장을 굳이 알아보려는, 알아보겠다는 어려움을 택한다. 반면 교수는 당신의 기대에 학생의 지적 수준을 맞춰주고 강의를 진행한다. 닿을 수 없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에게 다가가려는 마음, ‘애쓰’를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사를 해볼 만 한 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교사의 애쓰를 처음 경험한 곳으로 직스를 만난 건 꽤나 복된 일이었다. 교생으로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교사가 들이는 마음이 부질없게 느껴지지 않은 건, 직스 학생들이 되돌려준 ‘애쓰는 마음’ 덕분이었다. 학생을 생각하는 게 교사의 일이라면, 교사를 바라보는 건 학생의 몫이었다. 놀랍게도, 직스 학생들은 교사의 ‘사랑을 잘 받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유하의 <오징어>라는 시를 이해하는 숙제를 낸 적이 있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자, 학생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 “여기서 빛은 오징어에게 좋은 의미 아니야?” “아니지, 여기서 빛을 따라가면 오징어가 죽잖아.” “그런데 빛을 따라간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잖아.” 서로 다 다른 말을 하지만, 자신의 답을 말하고 있었다. 정답을 짚어내는 정형화된 해석력은 없을지라도 해석을 해보려 애쓰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봤다.

그날, 직스 학생들을 ‘착하다’라고 묘사하는 참미미를 다시 생각해보 수 있었다. 교사의 말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순종이 아니었다. 교사가 기대하고 준비한 교육상에 부응해 보려 같은 농도로 애쓰는, ‘착실하다’에 가까운 마음이었다. 이런 학생들이라면, 더 애써보고 기대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살 만하다는 마음을 주고받은 나날이 지났다. 기억을 잘 하지 못해 기록을 하는 내게, 잊지 못할 만큼 인상적이고 소화할 만큼 일상적인 장면들이 쌓였다.

올해 서울에서 맞을 두 번째 여름이 자카르타에서의 여름을 상기시킬 듯하다. 스포츠데이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1년 내내 여름이어서 저 나무가 늘 저 모습으로 서 있어요. 변함 없이.” 내게 직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엄청난 몸피로 서 있는 그 나무 같다. 언제나 여름이어서, 한결 같은 품으로 팔 벌리고 있어 줄 것 같은 곳.

처음으로, 가 본 곳에 다시 가고 싶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곳이라는 장소보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도. 해서, 자카르타에서 또 ‘살아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보고 싶은’ 직스 사람들 덕분에.

선배 인터뷰

권지아 선배의 꿀팁 인터뷰



[11424 김한글]

권지아 선배 소개: 2018년 12년 문과 졸업생
서울대학교 소비자야동학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합격

Q.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A. 체력적인 부분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 교시에 집중하고 수행을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챙기는데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어요. 지필과 수행을 챙기려고 하니깐 시간이 매우 중요했어요. 잠도 부족하고 체력 관리도 힘들었어요.

Q. 자신만의 공부 비법은?

A. 수업을 항상 열심히 듣고 매일 배운 것을 바로바로 집에서 복습하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수업시간 때는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수업에 더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본문을 외워야 하는 과목이 있다면 계속 소리 내면서 읽었어요. 학습지 같은 경우도 계속 7번씩 읽었던 것이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시험을 볼 때, 그 본문이 자연스럽게 기억나서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각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알아야 하고 토막 시간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Q.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A. 독서와 혼자 집에서 영화를 즐겨봤어요.



Q. 고등학생 생활 동안 행복했던 순간은?

A. 성적이 잘 나올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뭔가 '내가 이번에 또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겨서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Q. 자신의 대학 합격 비결은?

A.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활동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봉사활동은 다 스스로 찾아서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질문이나, 시험, 수행평가, 추천서 등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또 임원활동, 기장, 반장 등의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또한 공부를 할 때 밤 새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수업이나 시험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수행평가나 과제를 빼먹지 않고 전날 집에서 준비하고 쪽지 시험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도 참여해서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Q. 12년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A. AP, TOEFL, TOPIK 을 봤어요. TOEFL, TOPIK은 꼭 봐야 해요. 특히 12년은 TOEFL은 꼭 봐야 해요. 이런 시험은 미리 보는 게 제일 좋고, 점수 때문에 12학년까지 절대 끝지 말고 11학년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12년은 특히 내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Q.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나 충고가 있다면?

A. 학교에서 공부를 거의 다 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해요. 학교에서 최대한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매일 복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시험기간 때는 공부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기 꿈이 확실하고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선택과목을 선택할 때 더 쉬우니까 꿈이 있다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Q. 자소서랑 생기부 관리하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통 12학년 때부터 자소서를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시험공부를 못하고 자소서 쓰는 건 절대 안돼요. 12학년은 내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2학년 마지막 시험 끝나고 남은 시간 3주 동안에 자소서를 집중해서 썼어요. 꿈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자소서 쓸 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생기부와 관련된 활동은 자기가 많이 활동을 했다면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깐 학교의 모든 활동은 다 참여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충실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자기 자신의 뚜렷한 진로 또는 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배의 좋은 입시 결과의 영향을 받아 올해 12학년 선배들도 좋은 입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란다.



김예솔 선배의 한마디

[11226 안세인]

김예솔 선배 소개: 2018년 12년 이과 졸업생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고려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성균관 대학교 공학계열 합격

Q. 성인이 돼서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

A. 대학가면 미팅을 많이 한다던데, 저도 한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Q. 다시 고등학생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다시 하고 싶은지?

A. 공부를 더 열심히 해봤을 것 같아요. 1등을 꼭 해보고 싶어요.

Q. 가장 취약했던 과목과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A. 영어를 잘 못했어요. 고1 때 영어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원래 제가 수학 푸는 것을 좋아하는데 수학 공부보다 영어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12학년 마지막에는 본문을 아예 달달 외워서 영어를 1등 할 수 있었어요.

Q. 자신의 공부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마디?

A. 평소에는 플래너를 쓰지 않는데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공부할 내용들을 써 놓고 각각 몇 시간 정도 걸릴 지를 적어 놓았어요. 물론 못 지킬 때도 있었지만 시간표를 일부로 빡세게 잡아 공부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주, 틈틈히 공부해야지만 점수가 잘 나와요. 마지막으로 화학, 생물, 물리는 무엇보다 수업시간에 잘 들어야해요.

Q.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후배들을 위해 조언 한마디?

A. 저도 정말 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수업을 듣고 나니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교 가서도 이런 걸 공부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다양한 학과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각 과마다 무슨 과목을 수업으로 듣는지 알아봤어요. 저는 끝까지 진로 고민을 했고 저에게 맞는 전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남자친구를 사귀 적어 있는지? 지금 사귀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A. 슬프게도 남자친구는 없었고, 후배들은 연애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Q.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 하셨는지?

A. 처음에는 DA와 DNA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근데 DA동아리를 탈퇴하게 되었고 세렌디피티에 들어갔어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로와의 연관성인 것 같은데 저는 과학 관련된 분야로 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DNA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이런 식으로 관련된 동아리를 해야 나중에 자소서에 쓸게 많아지더라고요.

Q. 학교 다니면서 레슨 또는 학원에 다니셨는지?

A. 네 다녀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영어 학원은 토폴 공부하느라 다녀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학 학원은 예습을 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 배울 때 이해가 더 잘 됐어요.

Q. 자신이 생각하는 합격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A. 저는 사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학기 초까지만 해도 선생님께서 성적을 보시더니 어려울 것 같더라 제가 지원한 과(화학공학, 생명공학)가 너무 경쟁률이 높으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꿀까 고민하다가 다른 과들은 원하지 않아서 지원해버렸죠. 붙을 수 있던 이 유가 제가 마지막에 12학년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Q. 학교 다니는 내내 성적은?

A. 성적이 계속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계속 잘하면 더 좋겠지만 대학교에서는 성적이 올라가는 그래프인 학생들을 선호해요. 학생들이 마음 먹고 공부를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수를 조금씩 올리려고 노력하고 마지막에는 적어도 5등 안에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김예솔 선배와 인터뷰를 마치고 선배가 학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해야 할지 느꼈고, 평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대학 입시가 우리들에게도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그리고 수업을 잘 들어야 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조언을 해 주셔서 직스 후배들에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강혜수 선배의 공부법



[11421 권혜준 · 11328 조유리]

강혜수 선배 소개: 2018년 비12년 문과 졸업생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합격

Q. 지금까지 좋은 내신성적을 유지하신 비법은? (국어, 영어, 사회)

A. 국어는 딱히 따로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안 쓰고 교과서를 많이 보는 편이 있어. 그리고 대부분 문제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요점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나는 요점을 파악해서 예상 문제를 뽑아봤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 영어는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을 파악했어. 예를 들어서 빈칸을 뚫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우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나는 본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어. 사회는 정말 달달 외웠어. 이렇게 과목마다 공부 방법이 있는 거 같아. 딱히 비결이라기보단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보는 게 답인 것 같아.

Q. 자신만의 암기 과목 공부 방법은?

A. 나는 외우기 전에 학습지 같은 걸 일단 한 번 쪽 읽어. 한 번 쪽 읽으면 나중에 교과서를 볼 때 조금 친근한 단어들 보여. 그러면 조금 덜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외우기 싫어도 시험 하루 전이면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지만,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이야. 즉 암기 과목 시험이 일주일 후라면 나는 그냥 책 읽듯이 교과서를 일곱 번 읽어. 그렇게 하면 진짜 외워지는 것도 있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어가 친근해져서 내용이 퍼뜩 생각날 때도 있거든. 또 다른 방법은 편한 자세로 앉아서 나 자신에게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듯이 공부하는 거였어.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이 '혜수'라고 하면, "혜수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 이렇게 해서 머리에 들어온 것 같은데 무제 노트에 요약 정리를 해. 다 적고 나면 학습지랑 비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못 채운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아예 떠올리지도 못한 부분 같은 거 있지. 그런 걸 보면 '아, 이런 부분이 안 외워졌구나.'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 사회나 역사는 이런 방법들로 공부를 했는데 사회 과목은 보통 중요한 용어나 그 의미만 알면 되니까 역사보다는 수월했어.

Q. 후배들에게 영어 내신 공부 팁을 주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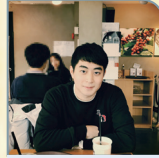
A. 학교 영어는 다 암기야.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은 빈칸 뚫거든. 그러니까 본문을 많이 봐서 빈칸을 바로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해. 만약 빈칸 문제가 문법이나 단어에 관한 문제라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한번 더 주의 깊게 보고, 나올 거 같은 문제를 밑줄 쳐가면서 외웠어. 독해는 선생님께서 문제를 꼬아서 내셨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

Q. 후배들에게 영어 지필 공부(특례 시험) 팁은?

A. 기본적으로 영어는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 또 속독이 잘 돼야 해. 게다가 빨리 읽되 정확히 읽어야 해서 나는 꾸준히 본문을 읽었어. 문제가 수능이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나는 문제집을 푸는 걸 추천해. 아, 그리고 이건 내가 쓰는 방법인데 나는 종종 멍 때리다가 읽던 부분을 놓쳐서 본문을 읽으면서 삽화가 나올 때마다 끊어가며 읽었어. 단어는 꼭 외워야 하는 거고. 나는 매일마다 100개씩 외웠어. 전날 못 외운 단어들을 다음 날 단어를 외울 때 추가해서 다시 외우기도 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외웠더니 외워지더라. 문법은 특례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어서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하고 틀린 유형을 찾아서 외웠어. 문법은 틀린 유형을 공략하는 것이 좋아.



강혜수 선배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부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어. 우리의 공부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가 묻어오는 인터뷰였고, 강혜수 선배의 대학생활을 응원한다.



정승훈 선배의 공부법

[11231 홍은지]

정승훈 선배 소개: 2018학년도 비12년 이과 졸업생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서강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합격

Q. 이과 수학 공부 방법은?

A. 고2 올라가면서 이과수업들을 따라잡기 힘들어 했었다. 고1 수학은 중 1, 2학년때부터 예습해서 큰 문제 없었지만, 고1때 2학년 수학 선형을 충분히 안 한 상태로 올라가서 수학을 어려워 했었다. 그래서 아예 고2 1학기 수학을 포기하고 2학기 수학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예습했다. 같은 방식으로 고2 2학기 때는 3학년 수학을 선행했다. 다른 문제집들은 굳이 많이 풀어보지 않았고 내신은 항상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초반엔 열심히 안 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노력했다.

Q. 과학 과목들의 공부 방법은?

A. 일단 과학은 암기 위주로 나온다. 그래서 물리 화학 같은 경우엔 머리로 풀기 보다는 암기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다. 암기를 했다는 말이 절대로 무작정 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구나 라며 이해를 해가면서 풀이방법을 외웠다.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학교는 교과서와 프린트에서 문제 유형이 비슷하게 나와 예외적인 문제가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내준 것을 위주로 열심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힌트들을 잘 캐치하고 내주시는 프린트를 위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내신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과학과목들은 문제를 적게 틀려도 등수가 많이 떨어질 정도로 경쟁률이 팽팽해서 등수를 올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Q. 시험기간의 공부는?

A. 수학은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 했다. 선형을 철저히 하는 편이어서 그날 공부한 걸 한번만이라도 쓱 읽으면서 복습했다. 그럼 시험기간에 공부할 때 기억이 되살아나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돼 도움이 된다. 과학, 영어 같은 그 외에 과목들은 무작정 시험 2주전부터 꼼꼼히 공부 하기 시작했던 편이었다.

Q. 공부에 동기부여가 된 계기는?

A. 열심히 하지 않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은 유지하고 있었고 한양대 공대를 목표로 잡아서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수학만 열심히 했었다.

얼마 뒤 친구들이랑 같이 직스에 오신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분들께 연대는 왜 우리 학교 비12들을 잘 안 뽑아주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그 분이 '전교 1등만 하면 합격시켜 준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못 할 거 없으니까 1등 해보자, 연대 가고 싶다'라고 다짐하며 도전했다. 평소에도 한국에서 더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아직 한국이었으면 지금만큼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기를 부여했다.

Q. 대학면접 때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는?

A. 면접은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 받을 질문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연대 면접에선 면접관 세 명이 계셨고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는 등 가벼운 질문으로 긴장을 풀어주셨다. 인하대 의예과 면접은 연대와 달리 분위기가 조금 더 딱딱했고 생명과학 위주의 질문들을 받았다. 공부를 안 한 탓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 결국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20분이여야 할 면접을 5분만에 끝내고 나와서 준비를 충분히 안 하고 갔다는 것을 잠깐 후회 했었다.



정승훈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 없었던 학교 공부에 동기부여가 주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과목들인 만큼 힘들다고 미루지 말아야 하고 평소에도 꾸준히 예습과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한 정승훈 선배님의 미래를 응원한다.



정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 성균관대 입학설명회

[11421 권혜준]



6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균관대가 2018년 3월 23일 직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7시간의 비행 끝에 직스를 방문했다.

성균관대학교는 더타임즈 대학평가기관에 따르면 세계적 순위 111위(2018)이고 국내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에 따르면 성균관대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NCSI (국가고객만족도)에 따르면 종합대학부문 2017년까지 11년 연속 압도적 1위와 취업률 76.4로 1위를 차지하며 다른 대학에 뒤처지지 않는 대학이라고 자부하였다. 또 성균관대학의 도서관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많은 학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성균관대는 대부분 계열로 모집하지만 10개의 학과는 계열에 속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 놓는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도전적 융합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경영학, 특성화된 경제전문가를 양성하는 글로벌경제학,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글로벌 경영학 등이 있다. 인문계에는 인문과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이 있고 자연계에는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이 있다.

성균관 대학교를 지원하려고 생각 중인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질문으로 특례를 받은 학생은 2학년이 되어 전공을 선택할 때 성적순이라면 특례학생은 자신이 듣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이 대다수 아니냐는 질문이 많았다고 한다. 그 질문에 입학사정관께서는 특례 학생들은 특례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해주었다. 계열제 모집의 장점으로는 1년의 전공 탐색 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성균관대에서는 TOEFL이나 SAT 점수가 몇 이하면 합격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들었다고 질문하였는데 그것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입학사정관은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을 뽑을 때 학업충실성과 전공적합성 그리고 잠재역량을 보신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앙드레 말로의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을 변형해 '오랫동안 성대(성균관대학교)를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입학설명회를 통해 성균관대학교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보다 낫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이번 입시 설명회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다. 입시설명회를 들으면서 입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다.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 고려대학교 재학생과 함께 한 대학탐방

[11421 권혜준 · 11328 조유리]



2018년 2월 19일,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고대')에 방문하여 고대 디자인조형과 재학생을 만나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1905년에 개교한 고려대학교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행복한 전인육성, 창의적 능력 있는 실무적 전문인 육성, 성실히 봉사하는 참여적 민주시민 육성, 통일을 준비하는 애국적 대한인 육성,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개방적 세계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고대는 민족대학으로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주체적인 조화와, 강한 화합과 단결을 통해 범조직적 포용력과 조화, 흡인력을 지향하는 정신을 추구하며, 약 113년 동안 학생들과 만나왔다. 오랜 시간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준 고대는 지금까지도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문과대학(서관)은 1948년에 짓기 시작하여 1955년 개교 50주년에 맞추어 일부를 완공하고, 1962년, 1993년, 2002년, 그리고 2018년 현재까지 나머지 부분 완공, 증축,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설치 등 많은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곳에는 문과대학 행정실과 문과대학 각 학과 행정실, 문과대학 교수 연구실 일부와 함께 강의실이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본관은 현재는 교실로 사용하지 않고 총장실 등의 대학본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들어갈 기회가 적다고 한다. 중앙 도서관이나 지하 도서관 등 좀 더 다양한 시설과 고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고대 재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었다.



Q. 고려대학교 시설 중 손꼽을 만한 시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 중앙도서관이라고 할 거 같아. 도서관이 정말 좋아. 정보 검색실, 노트북 코너, 24시간 열람실도 있어. 중앙도서관을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지하 도서관도 손꼽을 만한 시설이라고 생각해. Open Studio 교실이 있고, 새로 지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지하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수업도 이루어져서 집에서 라이브로 수업을 듣기도 해.



Q. 고려대학교에서 했던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A. 합동응원이 기억에 남아.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응원하는 것인데, 하고 나면 멍들고 목도 쉬고 다음 날 몸살도 나. 그래도 진짜 재미있었어! '고연전'도 정말 재미있었어. 비록 작년엔 졌지만 말이야. 동아리 활동도 즐거웠어.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는 아마 춤 동아리인 KUDT일거야. KUDT를 포함해서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동아리들이 인기가 많은 편이지. 그런 동아리들은 KUDT나 방송 동아리인 KUTV처럼 'K'와 'U'가 들어가 있어. 또 단합을 중요시하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외국인 교환학생 같은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많아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백 명이 넘기도 했어.

Q.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여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고려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들보다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 선후배 사이도 굉장히 끈끈하고, 학생들끼리 정도 많은 것 같아. 또 학교의 전통과 역사가 정말 탄탄해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

고려대학교로 대학탐방을 다녀왔다. 방학 중이라 학생들이 적어 생각보다 한산했지만 커다란 본관 건물과 문과대학 건물 등을 보며 대학교에 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재학생 선배와 여러 곳을 둘러보며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물은 중앙 도서관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었고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 고려대학교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학교인 만큼 내부 시설도 좀 오래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스마트 대출 반납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기계들과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중앙도서관은 우리 예상과 사뭇 달랐다. 또, 캠퍼스 안에 넓은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들었다. 그런 것은 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인 것 같아 몇 년 뒤에 대학생 활을 하게 된다면 꼭 경험해 보고 싶었다.

출처: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https://namu.wiki/w/고려대학교/시설>



전교회장 이현지

소감 및 각오 서투른 연설과 떨리는 마음으로 오른 첫 전교회장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처음에는 얼떨떨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일이 이 일이라서 기뻛고 부담감도 있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부회장 차정민, 8학년 대표 이희곤과 학년 대표 남지우와 함께 남은 한학기를 전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및 각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교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고려하는 학교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는 이현지 전교회장님 옆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교부회장 차정민

소감 및 각오 당선이 되었으니 약속했던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8학년 대표 이희곤



7학년 대표 남지우

소감 및 각오 대표학생 연설문 발표 때 떨렸지만 뽀뽀하니 기분이 나아갈듯이 좋았습니다. 이 기운을 담아 남은 한 해 열심히 이끌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회



학생회 에서 **학교** 에 물었습니다.

학생회 12학년 졸업여행을 만들어 주세요~

학교 몇 년전까지 졸업여행이 있다가 폐지된 이유는 2학기 말에 입사가 끝나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회 바틱데이와 그와 관련된 상점이 왜 사라졌나요?

학교 매주 금요일은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지정한 바틱 데이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그 문화를 배우기 위해 바틱 데이 제도와 상점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틱 데이를 악용하여 교복이나 바틱이 아닌 다른 사복을 입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결국 바틱 데이 상점을 폐지하였습니다.

학생회 저희 공약 중에 친다대(친목다짐대회)가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학교 학교 일정을 확인해야하지만, 학생회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학생회 중심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학기 중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학생회 교복바지가 길고 더워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욱 수업시간에도 교복이 아닌 체육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는 듯합니다. 혹시 반바지 교복도 가능할까요?

학교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 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바지로 바꾸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변경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직책	이름	공약	소감
회장	유희수	1. 소녀상 설치 2. 친목다짐대회 개최 3. 시험시간표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저를 뽑아주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내세웠던 공약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	이현진 (11학년)	1. 즐거운 학교 - 사복 데이 - 반 대항전 2. 화합하는 학교 - 양방향 소통 - 의견수렴 건의함 3. 깨끗한 학교 - 정결한 화장실 - 재활용 쓰레기통 4. 진로 멘토링 - 1:1 선배 멘토링	부회장으로 당선되어 매우 기분이 좋았고 더욱더 학교일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회장	김형석 (10학년)	전교 회장 부회장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돕고 실천	전교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학교 직스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전교회장 부회장님의 의견을 잘 따르는 부회장이 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스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다.

[9306 민어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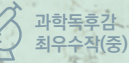


이번 5월 3일 JIKS 중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자바 중부에 위치한 SMP Negeri 2 Purwokerto 에서 인도네시아 학생 50명이 이틀 동안 찾아온 것이다. 우리 JIKS에서는 11학년 선배들의 힙합댄스 공연과 8학년 이희곤 학생의 멋진 피아노 무대를 보여주며 환영해 주었다. 이에 Purwokerto 학생들은 K-Pop 댄스와 아리랑을 부르는 등,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오게 된 Purwokerto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서 JIKS 학생들에게도 이색적으로 다가왔다.

우리 JIKS학생들은 새로 오게 된 Purwokerto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HR시간이 진행되었다. HR시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며 보냈다. 질문을 하며 한국문화와 다른 점들을 느낄 때도 있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진행된 정상수업에서도 Purwokerto 학생들은 열심히 수업에 임하였다. 이틀간 진행된 만남 속에서 학생들은 많이 친해져 Purwokerto 학생들이 돌아갈 때는 같이 사진을 찍고 SNS 친구추가를 할 정도로 서로가 가까워져 있었다.

이번 Purwokerto 학생들의 방문은 Purwokerto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이틀이 됐다. 또한, Purwokerto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아주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Purwokerto 학교와의 교류는 JIKS와 Purwokerto 학생 둘 다에게 도움이 된 아주 좋은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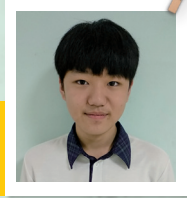


과학독후감
최우수작(중)

☐ 저자 : 정재승



‘과학콘서트’



[9111 조영준]

나는 직스 창의력페스티벌 과학독후감을 위해 방과 후에 직스 도서관에서 책을 찾았다. 책의 제목은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였다. 이 책의 저자인 정재승 과학자는 KAIST 물리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마친 후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이 책은 2001년에 출간되어 2018년 현재까지도 식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이 책에서 특히 프랙털패턴이 흥미로웠던 거 같다. 프랙털패턴이란 세부구조물들이 끊임없이 전체 구조물을 되풀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브로콜리를 생각해 보면 된다. 브로콜리는 원래 크기가 커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조각으로 잘라야 한다. 이때 원래 브로콜리와 자른 브로콜리를 비교해보면 두 가지의 모양과 생김새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프랙털패턴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예로는 조개껍질 등이 있다. 이러한 프랙털패턴은 예술품이나 건축물 등에 이공되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인 듯한 매력을 뽐낸다. 나는 이 현상을 통해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소한 듯 보이는 것들도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껏 과학자들은 어째서 인간사회 이외에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하는지 궁금했는데 그 질문의 해답을 찾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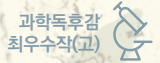
내가 2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과학 원리는 '머피의 법칙'이다. 요즘에는 그다지 유명한 말은 아니지만 항상 적용되어 왔던 이 머피의 법칙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몇몇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준다. 아침 늦게 일어나 지각위기에 빠진 채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토스트는 바삭하게 구운 식빵에 버터나 잼을 발라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성들여 만든 토스트가 빵이 아닌 잼이나 버터를 바른 면 쪽으로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자. "젠장!" 소리가 자동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은 떨어지는 동안 토스트를 회전시키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중력이 그 힘이 된다. 하지만 중력은 토스트가 떨어질 동안에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에 따라 이 현상은 설명하게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머피의 법칙들 중 일부를 이해시켜 준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머피의 법칙'이란 그저 과학적으로 풀이되는 확률게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크리스마스 물리학 단원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우상인 산타 할아버지는 1억 6천만 킬로그램의 선물을 들고, 106만 마리의 사슴들을 끌고 0.0007초만에 굴목에 선물을 던져 놓아야 하며 중력의 14억배의 힘을 버티는 채로 31시간동안 1억6천만 가정을 쉬지 않고 방문해야 한다. 사실상 산타할아버지는 20대 초반의 볼슬레이 겸 농구선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달은 걸릴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일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나는 아직 순수한 동심을 가진 아이들은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창의력페스티벌을 통해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즐거웠고, 다음에도 의미 있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프랙털패턴은 나중에 미술 수업 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산타할아버지의 진실은 동생에게는 비밀로 해야 될 것 같다. 이 대회는 내게 여러모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다.

프랙털패턴의 대표적인 예인 브로콜리와 조개껍데기가 왜 특이한 모양을 띄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내 장래희망인 펀드매니저와 관련된 사실들도 알게 되었다. O.J.심슨사건에서 사용되어 큰 주목을 받았던 DNA테스트도 확률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신선한 정보였다.

이 책의 저자인 정재승 교수는 과학자이면서도 놀라운 필력을 지녔다는 것에도 놀랐고, 정재승 교수는 놀라운 사람인 것 같다. 교수님에게 이런 재밌고 의미 있는 책을 출판해 준 것에 대해 감사사를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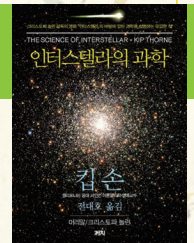
과학독후감
최우수작(고)

☐ 저자 : 킵 손 (Kip Thorne)



[12111 임현우]

‘인터스텔라의 과학’



처음 인터스텔라를 봤을 때 충격을 받았다. 나쁜 의미의 충격이 아닌 신선한 충격이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역량이 정말 잘 느껴졌다. 그러나 과학 영화이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많았다. 영화의 장면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저기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책에 손이 가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킵 손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 자문으로 인터스텔라가 영화적인 면 외에 과학적으로 성공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이 영화는 단순히 영화적인 것이나 과학계에도 좋은 표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때로 내게 가장 기억이 남는 우주선 인듀런스 호의 폭발 장면이 있다. 고의적으로 폭발 장면에서 음소거가 되어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폭발음이 들리는 착각을 느꼈다. 그러나 이런 기법에는 숨겨진 과학이 숨어 있었다. 사실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독은 영화적 기법인 음소거와 과학적 지식인 소리의 전도를 한 번에 사용한 것이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이 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인터스텔라의 첫 부분에서 브랜드 교수는 쿠퍼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구 대기는 80퍼센트가 질소라네, 우리는 질소를 호흡하지 않아, 병원체도 그렇다네. 병원체가 번성하면 대기의 산소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네", 브랜드 교수의 예측은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이 질문은 두 가지 과학 분야인 생물학과 지구과학이라니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원체란 염록체를 파괴하여 광합성을 못하게 막는다고 한다. 식물들이 죽어감에 따라 결국 O₂가 더 이상 창출되지 않고 호흡, 연소에 의해 파괴될 일단 남은 것이다. 정말 흥미로웠다 빙하기의 도래나 운석 충돌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인류 멸망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실 모든 병원체가 지구의 모든 염록소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몇 억년 뒤이지만 내가 본 지구 멸망설중에 가장 설득력 있고 신빙성이 높은 가설이었다. 나는 점점 더 이 책과 영화에 빠져들었다. 정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 빨리 지구를 떠나야한다. 그러나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은 둘째 치고,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행성을 찾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골디락스 존' 이론에 대해 공부하였다.

인터스텔라 초반부에 쿠퍼가 나사에 시설을 처음 방문 했을 때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타고 우주로 갈 거대한 원통형의 물체가 제작되는 모습을 구경한다. 그리고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식민지 안에서 일상생활이 평온하게 영위되는 것을 본다. 그들이 어떻게 지구를 벗어났는지가 영화에서 밝혀지지 않아서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 해답을 내가 추리해 봤을 때는 쿠퍼가 머피에게 전달한 양자데이터일 것이다. 혹은 어쩌면 인터스텔라의 속편이 대답해 줄 지도 모르겠다. 내가 즐겨본 다크나이트 3부작의 감독인만큼 인터스텔라 그도 재밌으리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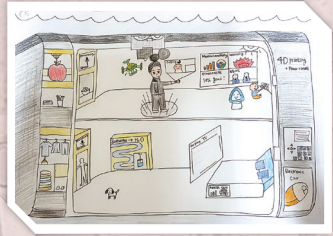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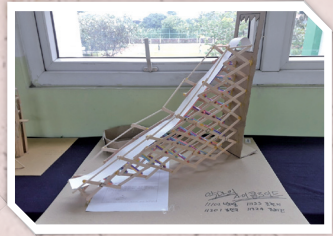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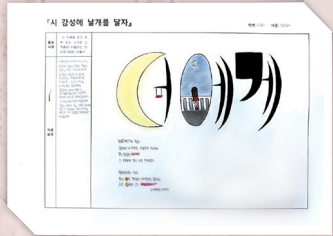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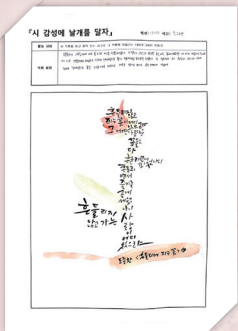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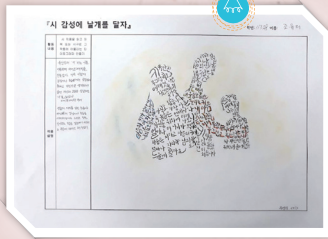
책을 읽는 동안 난해한 부분이 정말 많아서 몇 번을 반복해 읽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애쓰더라도 우리는 미래로의 시간 여행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으나, 이론적으로 과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이 영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다. 나 또한 이 영화를 보고 천문반에 들어갔으니 말 다했다. 책을 읽고 내가 영화에서 놓친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영화를 다시보기로 하였다.

이 책을 읽고 다시 보게 된 인터스텔라, 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재밌게 볼 수 있었다. 새삼스럽지만 2시간 남짓의 영화에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과학이 들었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무엇보다 나는 인터스텔라의 바닥에 깔려있는 메시지에 감동했다. 우리가 우주 안의 작은 존재라는 것, 지구 멸망은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는 재앙이라는 것 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은 지구를 멸망뿐 아니라 지키려고 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려면 먼저 과학을 알아야 한다.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에서 비롯된 과학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우리가 아는 진실이 바뀌는 혁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책을 읽고, 인터스텔라를 다시 보면서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영화를 만들어가는 내 꿈에 조금 더 다가가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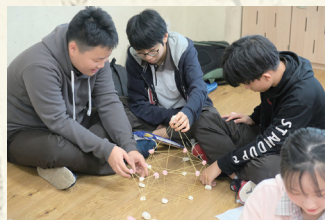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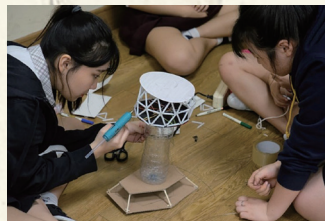
2018 창의력 페스티벌



<1부> 과학의 페스티벌

5월 24일 JIKS에서 창의력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들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1부 행사에서는 과학 위주로, 캐릭터와 상상화 그리기, 발명품 만들기, 그리고 과학 독후감 쓰기로 학생들이 과학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만 다가왔던 과학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많은 학생들이 '과학 캐릭터 그리기'를 선택하였고, 그 작품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그 이해도를 표현해내는 그림 실력까지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화 그리기'에서는 미래 과학 기술이 드러나는 '안전한 우리 집'이란 주제로 그린 학생들도 뛰어난 그림 실력과 미래 과학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해내어 심사위원들이 우승자를 결정하기 어려웠을 듯합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실용성이 높은 참신한 발명품을 제작한 학생들과 과학 독후감을 썼던 학생들도 이번 창의력 페스티벌을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1부 행사를 통해 과학과 관련된 다채로운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부> 다양하고 재미난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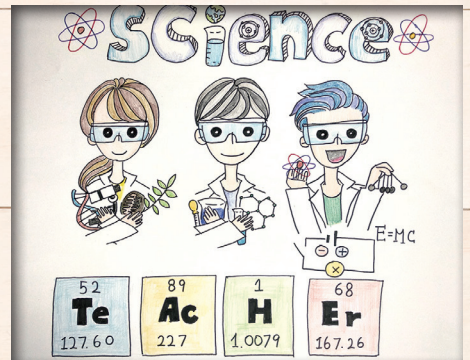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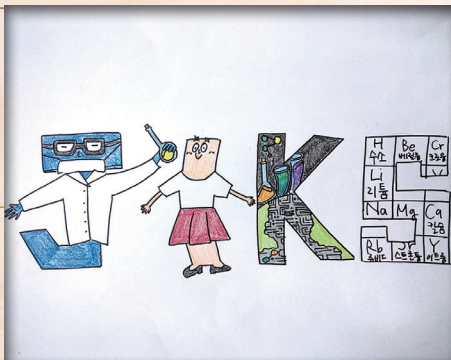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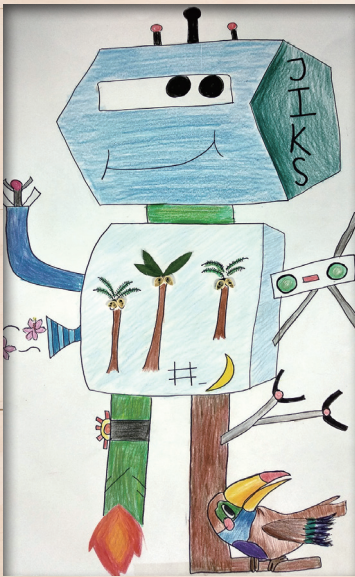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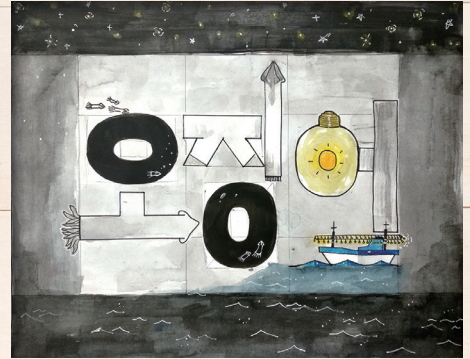
2부에서는 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수학 부문에서는 수학 구조물 경진 대회 및 수학 올림피아드, 문학 부문의 시 감성에 날개를 달자(타이포그래피), 사회 분야의 경제 골든벨과 SOSE Creativity Festival, 과학 분야의 스파게티면 탑 구조물 만들기와 Solar Cooker 등 1부보다 다양한 교과별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혹은 단체로 참가가 가능하였으며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팀으로 참여하는 '스파게티면 탑 구조물 만들기'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승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경쟁을 하는 것보다 성실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경제 골든벨'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 많은 참여자들이 허무하게 탈락하였지만 탈락된 학생들도 살아남은 친구들을 열심히 응원하며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 감성에 날개를 달자'라는 이름의 타이포그래피 만들기를 하였던 학생들은 3시간 동안 작품을 공들여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타이포그래피가 처음인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학교생활에서 창의력 페스티벌은 학생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창의력 페스티벌을 통해 JIKS에는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의력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준 학생들 덕분에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활기찬 창의력 페스티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JJKS 창의력 페스티벌





3월 14일 화이트데이? 직스는 pi(π)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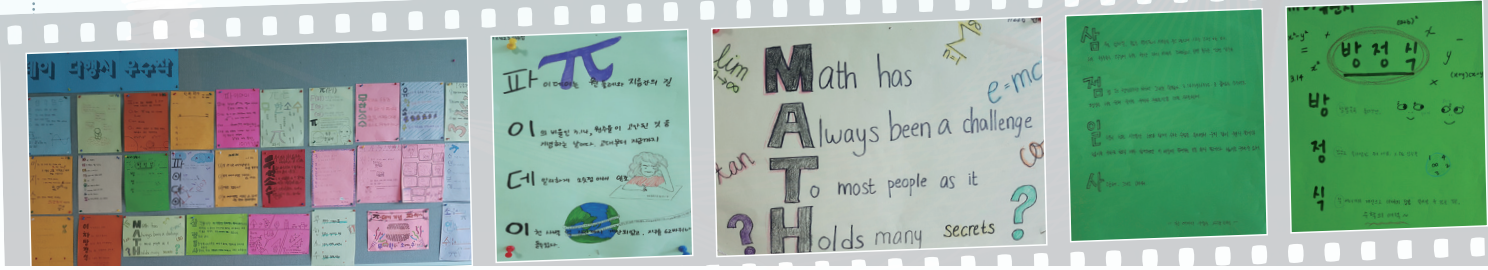
[11324 김희진]

'3월 14일'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파이데이는 수학 기호 파이(π)의 날입니다. 이 날은 프랑스 수학자이자 선교사인 자르투가 세계 최초로 원 둘레와 지름 사이의 길이의 비율인 원주율 3.14를 고안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최초의 파이데이는 미국의 한 수학회 자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3월 14일, 직스도 파이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파이데이 행사에서는 '원주율 외우기' 대회와 수학 용어로 '다행시 짓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가장 먼저 원주율을 외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생각해 두었던 수학 용어로 다행시를

지었습니다. 파이데이, 순환소수, 무한소수, 등비급수 등 많은 단어들 사용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파이데이 도우미 학생들이 진행하는 많은 행사들이 부스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벤트로 3.14초 맞추기, 책 314쪽 펼치기, 원주율 5000개의 숫자에서 자신의 생일과 차 번호 찾기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성공하면 초코파이를 주어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파이(π)를 배우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번 파이데이 행사가 그런 학생들에게 파이(π)에 대한 저마다의 좋지 않은 기억들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열려 학생들이 수학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발리에서

[9학년 민이원호]

이번 4월 24일에 우리 JKIS 9학년들은 발리로 스쿨트립을 다녀왔다.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더욱더 학생들이 기대 했던 것 같다. 총 3박 4일로 일정이 이루어져 있는 이번 스쿨트립은 발리의 특별한 문화와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게 짜여졌다.

첫째 날의 주요 일정은 울루와뚜 사원 관광과 깨짜 댄스 관람이었는데 울루와뚜 사원은 해발 75KM의 절벽끝에 위치한 사원이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울루와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뛰어난 경관의 절벽을 걸으면서 도착한곳은 깨짜댄스를 관람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발리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감상했다. 깨짜댄스는 사람들이 모여 "짜짜" 등과 같은 원숭이 목소리를 내며 춤을 추는 것이다. 이 공연의 재미있는 점은 춤이지만 뮤지컬처럼 스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2대 서사 시중 하나인 라마야나의 스토리를 깨짜댄스에서 볼 수 있다. 깨짜댄스 또한 발리에서 엄청 유명한 볼거리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공연을 보기위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고 모두 만족하면서 나가는 듯 보였다. 첫째 날은 이렇게 울루와뚜의 자연경관과 깨짜댄스라는 발리의 춤 문화를 보고 마무리가 되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래프팅을 즐겼다. 학생들은 고무보트에 올라타 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발리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했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강 가운데에서 물도 튀기면서 동물들도 보며 래프팅을 하였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떠나랏 해상사원에 가게 되었다. 16세기 자와에서 온 니라르파라는 이름의 고승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떠나랏 해상사원에서 학생들은 아주 멋진 경관을 구경하였다. 이곳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떠나랏으로 가는 길은 인니 현지의 느낌이 물씬 나는 기념품과 음식을 파는 가게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 거리에서 학생들은 이색적인 기념품들과 발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잔뜩 구경하였다. 특히 바틱 옷들이 가장 눈에



떠었는데 옷들이 기하학적 문양들과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어 보는 눈이 즐거웠다.

셋째 날에는 해양 스포츠와 남자들은 깨짜댄스, 여자들은 발리 댄스를 체험하였다. 먼저 오전에는 학생들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며 더위를 날렸다.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플라잉 피쉬 등등 많은 탈 것들이 있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신나게 바다 위를 날아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해양스포츠를 신나게 즐긴 뒤 호텔로 돌아와 남학생들은 첫날에 본 깨짜댄스를, 여학생들은 발리의 전통춤인 발리댄스를 배우게 되었다. 발리의 전통적인 춤을 배우고 공연까지 해보면서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았다. 남학생들은 여행 둘째날 보았던 깨짜댄스를 직접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학생들을 화려한 발리 전통 의상까지 갖추어 입을 수 있어 각각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체험이었다. 발리의 전통춤 배우고 난뒤 학생들은 호텔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미 자랑 시간이 왔다. 장미자랑에서는 춤과 노래, 직접 만든 랩을 구사하며 다양한 방면의 학생들의 끼를 뽐내고 즐겼다. 그렇게 친구들과 열정적인 밤을 보내며 발리에서의 마지막 밤이 끝났다.

마지막 날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기념품을 사고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도착하면서 스쿨트립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스쿨트립은 학생들이 그저 놀기만 하지않고, 발리만의 특별한 문화와 이색적인 자연환경 등 여러가지를 체험하며 학생들도 짧은 4일 간 많은 것을 배우고 갔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기회가 되어 이번 스쿨트립을 계기로 더욱 친구들과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10학년 스쿨 트리

10학년들의 시험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블리퐁 수학여행!

[10427 최정은]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날, 10학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모였습니다. 반트를 맞춰 입은 학생들은 누가 봐도 수학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6시 30분까지 도착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들뜬 마음에 피곤해 보이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도 옆자리 친구와 떠들다 보니 훌쩍 지나갔습니다. 블리퐁에 도착한 후, 바로 점심을 먹고 '무지개 학교'라는 영화의 작가가 머물던 학교 근처의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박물관은 아기자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 둘러본 뒤엔 실제 무지개 학교

촬영지인 장소로 향했습니다. 영화가 유명한 탓인지 관광하러 온 사람들 몇몇이 이미 인증 사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곳은 영화 촬영지답게 블리퐁의 상징인 흰 모래가 넓게 깔려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학생들은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관련 영상을 만들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다음날, 10학년 학생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블리퐁의 맑은 바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반별로 배에 올라타 이동한지 몇십 분이 지나자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의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하나 둘 오리발을 발에 끼우고 배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리퐁의 에메랄드 빛 바다 아래에는 알록달록하게 색을 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섭다고 못하겠던 아이들도 한번 들어가니 그 매력에 빠져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배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자 아

쉬운 마음을 감춘 학생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씻은 후 전교생이 다시 모여 장기자랑이 펼쳐질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뷔페와 작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늦지 않은 5시에 장기자랑이 시작되었는데 끝날 즈음 시간을 보니 10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케줄이 모두 끝나고 호텔에 도착한 아이들은 바다에서 하루종일 헤엄친 것도 잊고 새벽까지 모두 깨어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유롭게 9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10시에 모여 시내 시장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모두들 하루만 더 있고 싶다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80명 전체가 아무 생각 없이 즐겼던 것으로 보아 이번 블리퐁 수학여행은 10학년 모두 시험을 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11학년 스쿨 트리

학창시절 마지막 수학여행, 3박4일간 롬복에서의 여정

[11231 홍은지]



새 학기 중간고사를 아슬아슬하게 마치고 11학년들은 입시 때문에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할 마지막 수학여행을 롬복 섬에서 보내게 되었다. 4월 24일 햇빛이 짙은 오후, 부푼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지 관광 가이드 분들에게서 롬복 특유의 천을 학생들 목에 둘러 주시며 맞이해 주셨다. 그 곳에 도착해 가장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논밭과 어울려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는 링사르 절이었다. 가이드 분께서는 이 절은 세워진지 무려 300년이 되었다고 하였고 힌두교 뿐만 아니라 이슬람,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를 다루어 하나 됨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구경하고 사진을 찍은 뒤 묘목을 심으러 시골 마을로 떠났다. 우스꽝스럽게 생긴 닭이 우릴 보며 짹짹거리게 묘목 심는 발 주위에 멋있게 펼쳐진 산 장관을 있게 할 만큼 인상깊었다.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마친 후 Square Resto라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4일간의 식사 중 가장 맛있었다고 말했다.

둘째 날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Banyumulek 마을을 방문했다. 아주머니들께서 손에 물과 휴를 묻히고 옆에 놓여진 도자기들 중에서 디자인을 고르라고 하셨다. 우리의 미숙함을 아셨는지 도우미 아주머니들께서 거의 작품의 8할을 대신 해주셨는데 그 솜씨가 훌륭하여 마치 도자기 가게의 도자기를 본 기분이었다. 사실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 후 다른 마을로 이동해 천을 짜는 직조 체험을 했다. 나름 적극적으로 도전했는데 여기저기 사진이 찍혀서 당황스러웠다.

Sasak 마을은 들어서자 토속적인 분위기가 확 느껴졌다. 마을주민들로 보이는 분들이 특이하게 생긴 전통 악기들로 요란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며 기다란 화초리 같은 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술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사물놀이를 구경하는 것 같았다.

그때 유독 날씨가 화창해서 하늘이 파랗고 더웠다. 그 날씨에 맞게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다에 도착했다. 바다를 보고 신이 난 몇몇은 신발을 곧바로 벗고 모래사장로 달려 들어갔다. 원래 모든 바다가 그런지 아니면 롬복 바다가 유난히 이쁜 청록색을 띠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눈이 즐거웠다. 거센 물살과 모래들 때문에 서있기 조금 힘들어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진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애썼다. 버스로 돌아오자마자 땀방아 아래에서 열심히 놀았던 탓에 대부분 잠이 들었다. 숙소에서 일어나기 전 롬복 기념품 가게를 둘러 과자, 팔찌, 장식품 등을 구경했다.

그날 저녁은 밤바다를 앞에서 바비큐 뷔페를 즐겼다. 사실 무제한으로 나올 줄 알았던 고기들은 금세 바닥이 나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며 먹은 파스타와 바다 전경은 환상적이었다.

대망의 셋째 날은 스케줄이 많았던 탓인지 길게 느껴졌다. Gili 섬에선 스피드 보트로 이동했는데 바닷물 위를 그렇게 가깝고 빠르게 달린 적은 처음이라 배위에 매 순간이 재미있었다. 이미 '윤식당'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길리 섬은 도착하자마자 휴양지 느낌이 폴폴 났다. 많은 외국인들로 북적거리며 마치 하와이의 어딘가에 온 기분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배 위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기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 구경하는 것은 따분했고 멀리 날 것 같았다. 그래도 바닥 중간에 유리창이 있어서 다양한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온갖 피자과 파스타를 해치운 뒤 소화도 할 겸 친구들과 섬 주위를 돌아 보았다. 지나갈 때마다 종업원 분들에게서 '안녕하세요'를 남발했고 거리는 자전거를 탄 관광객들과 모래로 가득 차 있었다. 마차를 타기엔 조금 부담되고 자전거를 못 타는 친구들이 있어서 '윤식당'을 구경하러 갔다 오는 대신 앉아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길리 섬에서 떠나는 배는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 운전사님이 우릴 놀려주시려 핸들을 확 꺾을 땐 정말 깜짝 놀랐었다.

긴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가든파티가 열렸다. 해가 지는 시간대에 바닷가의 노을을 보러 나가니 속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정장 느낌에 옷을 입어서 그런지 조금 불편했다. 사진도 찍고 디저트도 먹은 뒤 장기자랑을 보기 위해 곧바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장기자랑은 들뜬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웃음이 터질 때도 있었지만 평소엔 얌전하여 예상 못했던 끼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 깨달은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밤이라서 그런지 그 날 밤은 친구들과 더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부랴부랴 급하게 짐을 챙기고 나왔다. 여행이 끝나서 아침기도 하고 집에 가게 돼서 즐겁기도 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하자 가이드 분들에게서 점심으로 햄버거 세트를 나누어 주셨다. 2시간의 비행 후 가방을 꼭 쥐고 자카르타에 도착하니 자카르타는 롬복과 달리 4일 전처럼 여전히 덥고 북적거렸다. 그렇게 잊지 못할 길고도 짧은 마지막 수학여행은 끝이 났다.





민도가 하나되는 날

[9101 강무현 · 9306 민이원호]

무현 :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민이원호 학생!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원호 : 네, 저도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요.

무현 : 저도요!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이 이 날만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이번 체육대회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원호 : 이번 체육대회에는 팀전인 농구, 축구, 피구, 배구, 넷볼, 킨볼 그리고 단체전인 이어달리기, 줄다리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무현 : 아~ 그럼 민이원호 학생은 혹시 참가하는 경기가 있나요?



원호 : 네, 저는 농구 경기에 참가합니다. 강무현 학생은 출전하는 경기가 있나요?

무현 : 저는 미모 경기에 나가요..... 하하하.

원호 : (웃 들은 척) 아 맞다! 이번 경기에는 각 종목마다 MVP가 있다고 하네요. MVP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무현 :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중학교 학생들이 특별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또한 기대가 큼니다. 혹시 공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원호 : 먼저 우리 중학교 부회장 차정민 학생의 힙합공연(YOI)과 9학년 최하정 외 7명이 준비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와 2곡의 KPOP 댄스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현 : 그럼 우리 제대로 한 번 체육대회를 즐겨볼까요.

(치열했던 경기들이 끝나고)

무현 : 네, 정말로 모든 경기들이 흥미진진한 경기들이었습니다.

원호 : 최종 결과입니다.

	축구	농구	피구	넷볼	배구	킨볼	계주	줄다리기
9학년	1반	3반	1반	X	1반	X	1반	1반
8학년	2반	2반	1반	2반	X	X	1반	2반
7학년	1반	2반	2반	X	X	1반	2반	2반

원호 : 종합우승은 9학년 1반, 8학년 2반, 7학년 2반이 수상하였습니다.

무현 : 9학년은 농구를 제외하곤 1반이 전부 이겨 버렸네요. 역시 우리 9학년 1반 최고!

원호 : 그래도 8학년과 7학년은 엄청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무현 : 맞아요. 특히 체육대회가 꽃인 마지막 경기 이어달리기는 아주 우리들의 심장을 쫓기하게 해주었죠.

원호 : 그런 흥미진진한 경기는 특히 9학년 농구였었죠. 2반과 3반의 결승전이 매우 인상깊었죠?

무현 : 마지막에 2반이 거의 역전을 할 뻔했죠.

원호 : 그러게요. 경기를 보는 내내 손에 땀이 났을 정도예요. 그런데 8학년 경기에서는 특별한 종목이 보이네요? 넷볼? 저게 뭐죠?

무현 : 넷볼은 공으로 하는 새로운 스포츠예요. 백보드가 없는 농구골대에 공을 넣어 점수를 얻는 스포츠이죠. 드리볼 없는 농구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원호 : 재미있겠네요! 여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군요. 그럼 7학년이 한 킨볼은 무엇이죠?

무현 : 킨볼은 요가볼보다 큰 공을 주먹으로 쳐서 올리면서 특정 팀을 호명하면 그 팀이 공을 받아야 하는 룰의 새로운 스포츠예요.

원호 :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 게임 외에도 우리 학교는 다양한 게임이 가능한 여러 운동 기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또 앞으로 이뤄질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기대됩니다.

무현 : 이렇게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치고 특별공연이 열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민군의 애미엠의 곡 'Not afraid'를 불렀고, 9학년의 댄스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원호 : 네, 이렇게 체육대회는 모든 학생들의 환호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희도 마쳐야 되겠군요.

무현 : 네! 그럼 저희 이만 떠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땀 만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시험 보기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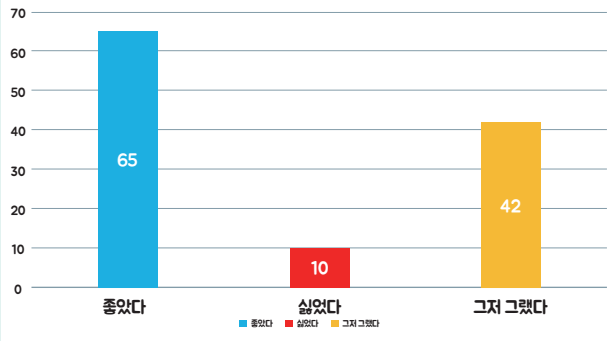


[9127 조희진 · 9101 강무현]



우리는 종종 '시험 보기 싫다.', '아, 이 과목만 시험을 안 본다' 내 시험 성적이 높아질텐데!' 와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5월 초 신문부에서 직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 했던 1차 지필평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지필평가는 그동안의 시험과는 달리 과목수를 줄여 수학, 과학, 영어, 인니어만 지필시험을 보고 나머지 과목들은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신문부는 직스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하였습니다. 과연 시험을 보는 과목 수가 줄었다고 모든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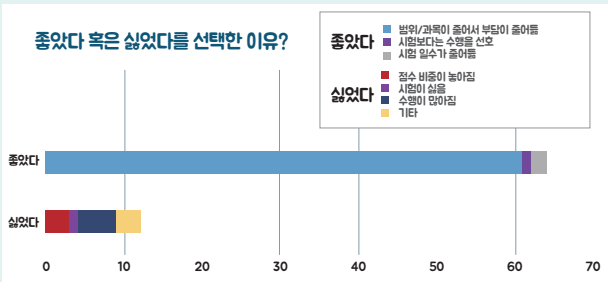
지금까지 해왔던 중간고사와 달리, 과목수를 줄였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조사 결과, '좋았다'는 65명, '싫었다'는 10명, '그저 그랬다'는 42명으로 총 117명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왜 이런 답을 내놓았을까요?

좋았다 혹은 싫었다를 선택한 이유?



'좋았다'를 선택했던 응답자 중 61명이 범위/과목이 줄어서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았다, 2명이 시험일수가 줄어들어서 좋았다, 1명이 시험보다는 수행을 선호해서 좋았다는 이유로 좋았다는 골랐고

'싫었다'를 선택했던 응답자 중 5명이 수행평가가 많아져서 싫었다, 3명이 점수 비중이 높아져서 싫었다, 1명이 그냥 시험이 싫었다를 골랐으며 시험 성적이 낮아짐, 시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기타 의견은 3개가 있었습니다. (무응답 1개, 중복 선택 有)

무조건 시험을 적게 본다'고 좋은 것일까요? 우리 학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만큼 단점을 보완해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	즈		맛	츄	법
만	이		심	각	혜

[11423 김세원 · 10422변나영 · 9223성다연]

“내꺼가 더 낫지 안아? 어떡케 생각해? 안되? 웬만하면 이걸로 하면 않될까?”

보기에 거슬리는 단어들이 눈에 많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이 틀리게 쓰고 있는 맞춤법이다.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은 점점 '말'보다는 '문자'로 소통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굳이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먼 거리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과도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전화보단 문자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일상 생활에서 흔히 틀린 맞춤법과 오타들의 종류를 알아보고 고쳐보도록 하자!



오후 9:08 그러니까요 ㅋㅋ 카톡이 편하죠
오후 9:12 신뢰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요?

다음 예시를 보고 틀린 맞춤법을 바르게 고친 후 한혜진 선생님께 고고~!

(선착순! 신문반 제외)

잘못 사용한 예	표준어	잘못 사용한 예	표준어
안되		어떨해	
~가 더 날아		나중에 뵈오	
웬만하면		내 꺼	

응답하라 1980's!

30년 전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들 추천 & 소개

[11231 홍은지 · 10421 김주연 · 9127 조희진]

“가장 찬란한 순간 우린 하나였다” 써니 (2011)



항상 속 썩이는 철부지 고등학생 딸과 가족에 무심한 남편에 늘 매달리던 평범한 가정주부 임나미, 그녀는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복도를 걷다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 친구 하춘화의 병실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고등학교 이후 25년 만에 반갑게 재회한 둘은 학창시절친구들을 찾아가며 그림던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한다.

“새별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와본 임나미라고 합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나미의 자기소개에 키득거리는 서울 아이들, 유명한 브랜드들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에 나미는 기가 폭 죽는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를 둘러싸 빙(?)을 뜯으려 하는 아이들을 양갈지게 처리해버리며 등장하는 진짜 학교 짱 하춘화. 어설피고 순수한 나미의 매력에 마음에 쏙 들어 곧바로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한다. 쌍커피 소녀 장미, 미스코리아가 꿈인 복희, 욕쟁이 진희, 대구발 안경집이 굿음, 예쁘데다 시크한 수지, 카리스마가 흘러 넘치는 리더 하춘화까지 6

명의 각양각색의 매력소유자들로 구성 된 학교 짱 무리 “써니”이다. 그들은 다른 학교와 ‘맛짱’을 뜯 때 활약을 펼친 뉴페이스 나미를 공식적으로 무리에 합류시킨다. 전라도에서 막 올라온 나미는 노는 클래스가 다른 친구들과 생전 처음 보는 미모를 가진 준호 오빠에게 폭 빠져 하루하루가 새롭고 흥미진진한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낸다.

어쩌면 좌충우돌하고 유치하게 들리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가진 이 영화 ‘써니’(2011)는 1986년, 우리들의 부모님의 고교시절을 바탕으로 한다. 가수 나미의 ‘빙글빙글’이 히트를 치고, ‘청창’ 패션이 유행했던 그때 그 시절은 막 서울로 올라온 나미의 순수하고 풋풋한 시점에서 보여진다. 장면 하나하나가 생동감 넘치고 유머러스 해 몰입도가 높아 보는 눈이 즐겁다. 첫사랑, 우정싸움은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아빠도 한 때 풋풋한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영화 ‘써니’를 강력 추천한다.



“모두가 뜨거웠던 그때” 1987(2017)

영화 1987은 2017년 12월 27일에 개봉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실화를 근거로 한 영화이며 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6월 항쟁까지, 대한민국의 뜨거웠던 1987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며 관객수 723만을 돌파하며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치안 본부처장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빨갱이 취급을 해 고문을 하는데 고문당한 한 학생인 박종철 군이 물고문으로 익사하자 이 사실에 분노한 사람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고 연세대에서 대모를 하는 학생 중 한명인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얼굴을 맞아 사망하는 이야기다.

이 영화는 80년대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그때 당시의 전두환 군부독재의 가혹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비슷한 영화로는 택시운전사, 변호인 등이 있다.



변호인(2013) 영화 「변호인」에서 엿볼 수 있는 80년대를 보여주는 키포인트 4가지

영화 “변호인”은 전 대통령 노무현의 일생의 일부를 모티브로 하고 있음과 동시에 80년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화 “변호인”에서 볼 수 있는 1980년대의 모습에는 뭐가 있을까?

1. 부동산 변호사가 없었다.

영화에서 송우석(송강호)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전에는 관련 변호사가 적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송우석이 다소 구질구질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다녔어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가 그것이다.

2.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이 귀했다.



송우석이 아파트에 있는 방 하나를 사려 과일바구니를 사가지고 가는데 송우석을 문 앞에서 맞이한 집주인이 파인애플 ‘하나’를 보고 기뻐한다. 과연 2018년에 덜컥 집을 방문해 이 집에서 살고 싶다면 파인애플 하나를 보여주면서 집 구경을 하고 싶다고 말해도 송우석처럼 통했을까? 대부분 - 혹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파인애플과 같은 수입과일이 비싼 시기였던 80년대라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보다싼 가격으로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나나도 예전에는 아주 귀한 과일이었던 거!

3. “부산에서 광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 “제일 못 믿을 게 방송이고 신문이다.” (영화 ‘변호인’ 대사 중)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과 언론통제에 대한 이야기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 민주주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재가 있었던 시대였다. 언론을 통제해 사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막으려 했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빨갱이(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라고 부르는 등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이다.



4. 국기에 대한 맹세

영화를 보다 보면 애국가가 들리면 진지하게 기싸움을 하다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서있었다. 이는 1970~80년대 애국가가 거리에 울려 퍼지면 가던 길을 멈추고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이었는데 70~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신문반이 추천해주는 인도네시아 맛집

[11226 안세인 · 11324 김희진 · 9105 김세호]

Colette & lola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중독성 강한 맛의 수제 케이크와 쿠키를 만드는 디저트 카페이다. 이곳의 케이크와 쿠키 모두 커피와 어울리는 적당한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느끼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또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인 '설악 추어탕' 근처에 위치해 있어 그곳에서 식사한 후 'Colette&lola'에서 디저트를 먹는 것을 추천한다.

리뷰/별점

"Cake is not too sweet."

○○○○○ Jul 31, 2017

Revina D (24 reviews)
Jakarta



Nice little place with nice ambient. They can help with your order in quite fast. I like it that their cakes are not too sweet as others. However, the price is not cheap, slightly...

번역: 아주 좋고 분위기가 좋은 장소예요. 주문도 빠르게 잘 받아요. 이 집의 케이크는 다른 케이크와는 달리 아주 달지 않아서 좋아해요. 하지만 가격이 엄청 저렴하지는 않아요.....

Remboelan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 Senayan City에 위치해 있다. 이 식당에서는 'Nasi Goreng'이라는 인도네시아 볶음밥과 'Mi Goreng'이라는 면 요리 등 다양한 음식이 판매된다. 이 식당은 비교적 깔끔한 인테리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리뷰/별점

"Tasteful Indonesian cuisine"

○○○○○ Jul 6, 2016

merry w (66 reviews)



If you are looking for the traditional Indonesian cuisine, you have to try here...The taste were great..if you love spicy, try their 'nasi bakar'. There are several choices of nasi bakar, but roa and cakalang were the best for me...for beverage, try their ice tamarind (i forget the name)

번역: 만약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 이 곳에 꼭 가보세요. 맛이 엄청나요. 만약 매운 것을 좋아하신다면 그 식당에 'nasi bakar'을 시도해보세요. Nasi bakar 중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roe와 cakalang'이 저에게 최고였어요. 음료는 ice tamarind를 먹어보세요(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Lucky cat coffee& kitchen

예쁜 인테리어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 카페는 Plaza Festival, South Parking에 위치하고 있다. 이 카페는 24시간 운영하여 늦은 밤에도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다. 음식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 주문 후 기다림 없이 바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카페에서는 간단한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으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는다.

리뷰/별점

"minimalist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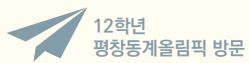
○○○○○ 21 Jan 2018

Girihanafi (50 ulasan)
Semarang, Indonesia

makanan dan minuman sangat enak. ada harga ada kualitas;) dan disana menjual spot foto juga. Banyak spotnyaaaaa

번역: 음식과 음료가 매우 맛있어요. 가격도 알맞고, 그곳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많아요~~

*리뷰/별점 출처: Tripadvisor



새로운 올림픽의 역사를 쓰다, 평창동계올림픽

[10428 한하은 · 11424 김한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군에서 제23회 동계 올림픽이 열렸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이며 서울에서 개최된 1988년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이다. 1988년과는 정말 큰 발전과 변화를 이룬 올림픽에서 보여주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을 인정할 만큼 새로운 올림픽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는 더 젊고 다이내믹한 올림픽이었다. 경기종목에는 알파인 스키, 봅슬레이, 컬링, 루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등이 있었고 총 92개국이 올림픽대회에서 참여하였다.

많은 선수들이 신기록을 세우고 하이라이트의 장면을 많이 만들었다. 특히 여자 종목이라 불리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 트랙 스케이팅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스피드 스케이팅 10,000m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승훈 선수가 1위를 차지하며 12분 55초 54로 한국신기록을 세워 올림픽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이번 올림픽에 사람들에게 가장 이슈가 된 컬링은 선수들이 대단한 경기를 선보였다. 이번 한국대표 컬링 팀은 승승장구하여 일본을 제치고 결승전까지 올랐다. 비록 2등을 차지하였지만 컬링이라는 종목조차 생소한 한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지금도 지난 방송을 결과를 알고 다시 보아도 소름이 돋아 우리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

스켈레톤 종목에서 1등을 차지한 윤성빈 선수빈 선수는 2018년 2월 15일 1~2차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다. 이 선수는 아이언맨의 모습으로 슈트를 준비하였고, 그 모습답게 자신의 기량을 펼쳐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임지연: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 동안 한국에 갔을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국의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사람들과 함께 응원하며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청와대에 직접 간 것은 잊지 못할 일입니다.

오유진: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른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해보지 못한 한국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어렸을 때 갔었던 남산타워, 경복궁과 한옥마을을 갔다 와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평창에 가서 동계올림픽을 보며 다른 친구들과 열정적인 호응과 응원을 하며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로 외교부와 청와대를 갔다 와서 TV에서만 보던 강경화 장관과 김정숙 영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평창 방문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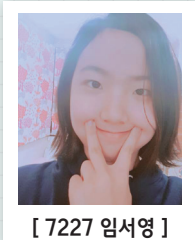
장인용: 다문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저는 평소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인도네시아 국적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평창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인연을 계속 유지하고, 추억을 간직하며 살 계획입니다.



JIKS is going to provide a place for students to live during the week. Describe the three most important things it still needs.



Should governments put more money into space exploration?



[7227 임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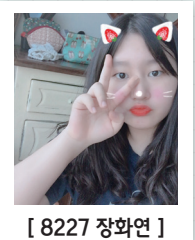
Every student needs to go to a school to learn, however sometimes students have a hard time transporting back and forth from their house to school. Due to this uncomfortable way of coming to school, some are going to make a place for students to live during the week. Since the place is for students to live in, the school needs to think and care about the important things the students need. I think safety, food, and proper furniture are the three most important factors the students will need.

Firstly,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the place will need, because the school will be in charge of any kind of accidents that happens in that place. Another reason is because of the students' parents' worries. They'll be worried all night about their sons and daughters who're staying out of home. That's the reason the school needs to be especially informed and aware about the students' safety while staying in the place.

Secondly, food will have to be provided for the students to eat. Foo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keeps the children healthy. The school will have to be fully aware and careful about the food they provide to the students. It should be clean and fully healthy so that the students will come back to the place for another night.

Thirdly, proper furniture should be provided in every room. The rooms shouldn't be blame and hollow. It should be provided with good beds, tables, and chairs so that the children can study and have a nice sleep in comfortable furniture provided. Or else, it will be difficult for students to stay a night in, and will decide not to come back again for another night.

Safety, food, and proper furniture. These are the thre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I think of, and should be fully aware while making those places for students to stay in. There will be hard consequences to schools that couldn't accomplish the three factors. However, the students will be very thankful to schools that provide a comfortable place to stay in. I wish and hope JIKS can accomplish this plan for students too!



[8227 장화연]

I think governments should not put more money into space explora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space exploration, but in our Earth there are more problems before developing space exploration. For example, governments should help poor people in their country first, not in space exploration. For these reasons, I do not recommend to put more money into space exploration.

Why do we need to put more money for space? Just for fun? Or is it just exciting? Nowadays, scientists are finding a new planet instead of our beautiful planet, Earth. We should think about 'How do we save our earth?' before finding a new planet that we can live on. For the first reason, if we find a new planet to live, it will be too far to go and live. Also, we don't have enough spaceships to move all the people in our earth, so we have to think about our planet before space expl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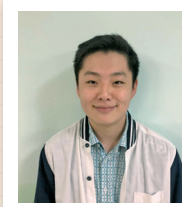
If governments have enough money to develop their space exploration, help your people who are poor, who can't eat or have no clothes to wear or no houses to live, in help them first, not rich people. If governments need money to develop space exploration, people in those cities have to pay more money to governments, so there will be too many poor people in that country. What should those countries have to do? Also, if people pay a lot of money to governments, but if governments fail their work, how do governments pay for people's money? So we should help poor people around the world first.

Lastly, if we develop space exploration work, we need a lot of natural resources to make them, so Earth will become dangerous. In the North pole, ice is melting because Earth's average temperature is going higher, so polar bears can't find their ice to live. Also, some countries are sinking down to under water, but if we start developing space exploration work, it will be more dangerous to Earth. If it begins to get worse, we can lose houses to live.

We don't need to put more money into space exploration, but we need to put more money for our Earth, people and for nature. Think about the problems that we need to solve first. Then, we could put more money for it!



Some people think that they can learn better by themselves than with a teacher. Others think that it is always better to have a teacher. Which do you prefer?



[931] 차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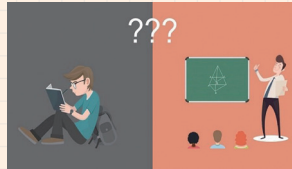
The very act of obtaining knowledge (which is also widely known as learning) requires the person who is involved in this process to be changed, and hopefully to become even more than what he or she was before. But who could engage more efficiently in this form of enlightenment, other than the very person who is being enlightened himself? I believe that learning can be done quite diversely according to each person's unique taste, and rather than mundanely acquiring others' philosophies in order to solve test problems, workbook, exercises, etc. It would and should come quite convenient and soothing if implemented alone.

The primary reason that I'd like to state would be the fact that you could develop a working ethic. We occasionally set up goals in life, that we presume would lead to the doorway of our wildest dreams as if they were a flight of stairs. However, from time to time, we find ourselves procrastinating and getting lazy by the minute. Via reading biographies portraying the vicious battles of heroic people such as Einstein, Oprah Winfrey or even Stephen Hawking within their 'inner-selves', we can get access to techniques of disciplining and believing in ourselves when performing any tasks from easy to daunting. Thus, using our lives as productively as possible, this point also shows the fact that what we learn doesn't just end from the elementary subjects that we encounter during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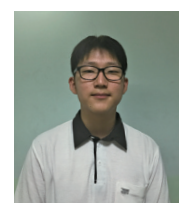
Another stance that I'd like to point out would be that through learning by yourself, you can utilize your spare time by digging deeper towards more than what simply meets the eye. You could make a variety of questions or new relationships between a series of information. Thus, leading to a remarkable conclusion or analysis of your own. This method wouldn't just solve and satisfy your short-term curiosity, but also broaden your ways of thinking. Such new strategies would help substantially when revising for a test, coming face to face with a challenging situation, and the list goes on.

And finally, instead of getting repetitively nagged, scolded or possibly criticized by somebody who says he's trying to help you but appears to be greatly limiting your potential creativity, learning alone could actually give you the chance to develop some passion for the work you do. You're the one who is supervising, editing and putting what you have in your mind into action. Eventually a sense of pride and esteem would most likely burst out of you, tempting you to seek that pleasure once more. Love is also a prominent form of motivation when increasing your speed and accuracy of displaying what you've learnt via mediums including the exams and assessments that we tend to despise today.

To conclude, learning alone stimulates our rate of productivity, encourages, creative and innovative ways of thinking and gives us the priceless gift that most competitive and reckless pupils seem to always ignore: love. From Confucius I quote, '학이시습지불역열호(Isn't it a joy to simply use what we've learnt through reading and debating, in our own regular lives?)'



Do you agree or disagree: High schools should allow students to choose the courses that students want to study.



[10107] 임태우]

To this day, a large number of problems still persist in relation to education. The average high school student today faces numerous tasks, such as getting sufficient grades to get into the university they want.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student still doesn't know what his or her strengths and weaknesses are, or which field of work he or she can thrive in. In relation to this problem, I will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high schools should allow students to choose the courses that students want to study', in this essay.

Firstly, let's take a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right now. Education is important to a person's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ir teens. Not very long ago, public education was not what you would call 'ideal'. It still isn't, but if students were able to choose their path of learning, education would be healthier and more productive. I am a high school student at JJKS, and all around me I see so many bright kids, full of potential, but because they are forced to take part in classes which they have no interest in, I see teachers degrading them as inattentive or lacking in academic mindset, when this is not the case.

Taking a look from a statistical view point, Korea has the highest rate of suicide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en compared to other OECD-listed countries. This is ominous in itself, but what makes it worse is difficulties that the number one reason is academic stress. I am already aware that every student has the same difficulties that with academic stress. However, when this problem escalates to the loss of lives, there cannot be a more urgent issue than solving it. Consequentially, I think that allowing students to choose the courses they want to study is a great solution.

The advantages of endowing students with freedom in choosing what they want to study are vast. Firstly, they will be more attentive and enthusiastic about the subject resulting in more productivity, and students will also be able to take part more actively, as it is an area in which they as it is an area in which they are already interested in.

Ultimately, I agree with the statement; High schools should allow students to choose the courses that student want to study.

Technology is making communication easier in today's world, but at the expense of personal contact. Do you feel that this more beneficial than not?



[11410 조성익]

but in my opinion, this trend is benefi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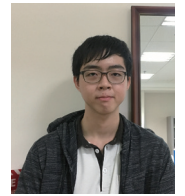
The first reason why I think it is more beneficial is because we still make personal contact. It's not like people only meet online and don't know each other's face. We do both online communication and offline communication. Technology doesn't replace our former form of communication, it only adds to it. Due to technology, we don't have to meet others every time just to inform something. However, we still do meet others to play or eat. Technology did reduce the amount of personal contact, but there still is personal contact.

The next reason is that technology eliminated unnecessary personal contact. For example, we now don't have to meet with a friend just to ask what the homework is. We can simply text them whenever and wherever. Technology has made communication easier and simpler. And that is what technology does; improve the quality of our lives, make our lives much more convenient. We don't have to dress up and make up (in case of girls) every time just to ask for homework. We can talk about concerns and serious stuff in our pajamas. This is the power of technology. It saves our time, energy and money. Therefore, online communication is beneficial.

Finally, online communication has come to a point where it is not so different from face to face communication anymore. Critics might talk about facial expressions and voice tone. This is not a problem since we can call or have a face chat. Moreover, in an online communication, people can even use emoticons to express their emotions, making it better than face to face communication. People also may argue about not having physical contact with their girl/boyfriends. However, this can actually be an advantage since couples will want to have physical contact and will urge for it. So if they can meet in real life later on, they will feel how much they love each other.

In conclusion, I think that technology has always improved our lives. If the majority thought it had a negative impact, social media would not have been so popular. Online communication may cause few problems, but I believe that the benefits outweigh the costs.

Modern Internet speeds allow for near – instantaneous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ng remotely has become a simple matter in today's world. Some people feel that, for most situations, being physically present for either study or work should not be a requirement. What is your position on this matter? Your essay may focus on study, work, or both.



[12403 김진형]

I have always marveled, while looking at online ads advertising Korean cyber-universities, at how grandiose these faux-education institutes promote their greatness to the world. They boast cheap tuition fees, easy access to lectures, and shady looking government-approved certificates, showing off their authenticity in a rather desperate way. Unfortunately for them, Korean parents do not think cyber-universities as a legitimate facility because of how lectures are presented one hundred percent via online meetings. Since you don't have to attend lectures in a physical manner there is no such thing as being late and getting into detention, and since the university buildings are laughably small compared to the 'real' universities, you won't be meeting many students' daytime or nighttime. Even after receiving your degree after years of 'studying' in a cyber-university, there isn't much value to it. While other students have toiled their way every morning riding the subway to the campus you just have to sit on your chair comfortably, open the MacBook and in a click of a mouse the lectures are all spoon-fed. With less effort and time you can receive your liberal arts degree but that's about it.

If you think about why these cyber-universities still exist despite all the negativities, perhaps another view might come in sight. Some people do not have the money and time to go to regular universities, and these institutes present a viable solution. I mean you are technically graduated if you got a degree, no matter the routes. Grandpas who missed their education opportunities due to the Korean War might finally receive one in a cyber-university. They will fulfill their life-long dreams and everyone will be happy. We do not have the right to restrict one's right to education. Because of this, I believe that cyber universities should not cease to exist for they provide an alternate means to continue one's study. What I'm really irked is the fact that how our society has divided the universities into two types: one which requires you to call out your attendance and one without.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these two, both in terms of academic power and social status. Students, almost 99.9% of them, choose to go to a regular university because other means of education just can't compare to them. You will be shunned by your peers, kicked out of your family or both if you enroll in a cyber-university. Being physically present for study is important, and that is how I will act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But there is a grey area when it comes to being a 'requirement'. Maybe if our society didn't pressure us, students so much into going to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if the quality of your typical cyber-universities weren't so rubbish as today, you might consider different options after graduation. However that day might never come, and I still call my attendance every day.

영어
기사

MIDDLE AGED SLIM SHADY MEETS HIS BELOVED ANACONDA.

9

[9311 차정민]

"Hold on a minute, I actually wanna use this time to shout out to 'wifey'. Nicki, let's talk more about this matter at home tonight OK?" quoting from Eminem during consecutive performances in Boston and New York City in the U.S. during May and June.

The renowned American 45 year old hip hop artist/producer, Marshall Bruce Mathers III, has been in a recent love affair, and what is now interpreted to be an eventual betrothal with the prominent Jamaican rooted female rapper Nicki Minaj via a series of mind blowing, controversial events. While the two have been notorious for their rare but vivid

signs of communication on social networks, many have praised this union to be what the majority of the public refer to as "Rap's royal couple".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dispute and even rage, criticizing not only their stark age difference, but also the already well known history of multiple divorces previously made by the groom to be. However before beginning to yield support towards either point of view, we need to know precisely what these giants in the music industry have been through that could possibly have led to this surprising fate.

Born in 1972 St Joseph Missouri in the U.S.A, young Eminem was born to a single mother and lived in an unstable environment in the east outskirts of Detroit city, drenched in poverty due to his father's unfortunate abandonment of the family. Moving schools at a frequent rate, he often faced a substantial amount of racial discrimination from African American peers solely because of his crimson haired, Caucasian looks. However they soon became aware of the many gifts he held consisting of the various sources of his art (topics he could spontaneously rap about), his fluency in utilizing the English language and his guts to perform in front of huge crowds in underground rap battles. This scrawny juvenile from a trailer park home in Detroit only sought to pursue his dream of becoming a legitimate musician bringing food to his family's table. Using the alter ego "Slim Shady", Eminem spoke about a variety of subjects including the suicide of his uncle Ronnie Polkinghorn, his mother who sued him for lyrical assault, or even his wife who he claimed cavorted with another partner at a pub.

Onyika Tanya Maraj was also originally born in Saint James, Trinidad and Tobago approximately a decade after her husband-to-be. Professionally known as Nicki Minaj, young Nicki grew up in New York in the Bronx, which is widely known for its reputation as the birthplace of Hip Hop, where DJ Kool Herc began to spin two turn tables to make a new, innovative genre of music. She recalls her childhood to be "just alright" but lacking in discipline from her parents. It is also quite painful when reminded of her father, a drug-addict and an alcoholic man who even burnt down his own family's house. Considerably adamant and determined to achieve a decent, economically carefree life, Onyika was restless, seizing every opportunity that came to her from part time waitress to participating in local film projects as a practical actress. After becoming acquainted with rap, she was later signed into Young Money Records by contemporary CEO Dwayne Carter II, a.k.a. Lil Wayne, who saw in her a unique potential. Being the first female rapper who actually managed to make it into mainstream music, Nicki Minaj designed an outlet for future generations with distinct, unforgettable costumes (usually in blazing red or pink), accents and a groove everyone ended up shuffling their feet and limbs to even to this day with hits such as "Anaconda", "Starships", "Pound the Alarm", and so many more.

The main catalyst contributing to this dazzling relationship would be the automatic connection felt between these two monstrous lyricists. The unspeakable authenticity spotted in the numerous works made by these musicians would provide enough evidence to how much these two would most likely feel; a thirst and aesthetic desire for each other. Such phenomenal traits can be easily seen in records such as "Roman's Revenge", or even past songs containing lyrical content that playfully offends each counterpart. What many listeners have also deemed as misogynistic, homophobic, perhaps a little too sexually stimulating or even completely irrelevant to hip hop has continued to show up in the world, clearly stating that this is in fact who the artist says he or she is. Replying on SNS, Nicki Minaj cheerfully welcomed her lover's affectionate words, mentioning that she wants him to participate in designing her upcoming album. She also posted that she'd even sample Eminem's rugged voice for the introduction of her songs as well. More news is expected to be heard very soon.

인니어
기사

Pendapat Saya Mengenai Kesenian Indonesia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나의 의견)

[11226 안세인]

Saya sudah tinggal di Indonesia selama 16 tahun. Selama 16 tahun ini, saya telah melihat berbagai macam pementasan kesenian dan kebudayaan Indonesia. Kesenian itu banyak ragamnya. Ada seni musik, pertunjukan, sastra, tari, dan seni rupa. Indonesia sebagai negara yang kaya memiliki semua jenis kesenian itu. Dari sekian banyak kesenian dan kebudayaan yang saya saksikan, yang paling mengesankan buat saya adalah tarian kecak. Tarian itu sangat berbeda, ada irama yang menghentak-hentak semua penonton, yaitu suara "kecak, kecak." Penuh semangat dan irama yang serasi dengan gerakannya.

Tidak hanya pementasan kesenian seperti pertunjukan tarian, Indonesia juga memiliki karya seni lain yang berbentuk kerajinan tangan atau seni kriya. Hasil karya seni ini mudah dijumpai dalam kehidupan sehari-hari, bentuknya beragam, dari pakaian, aksesoris, hingga peralatan rumah tangga.

Salah satu contoh seni kriya yang saat ini sudah dikenal luas adalah Batik.

Batik dibedakan atas teknik pembuatannya, yaitu batik tulis, cap, dan lukis.

Batik tulis pembuatannya menggunakan tangan dengan lama proses sekitar 2 hingga 3 bulan. Lalu, batik cap merupakan batik yang dibuat dengan cara dicap ke seluruh bagian kain. Kemudian, batik lukis adalah batik yang pembuatannya dilakukan dengan cara dilukis.

Tidak semua batik terlihat sama. Hal itu disebabkan perbedaan teknik dalam membatik. Setiap daerah di Indonesia memiliki ciri khas membatik tersendiri. Oleh karena itu, tidak heran jika setiap pola, warna, dan motif batik yang kita gunakan pasti berbeda.

Menurut saya, batik adalah sebuah karya seni yang menunjukkan bahwa kreativitas orang Indonesia sudah ada sejak dulu kala. Dalam sejarah, tercatat bahwa Batik sudah ada di Nusantara sejak Kerajaan Majapahit. Kalau mengikuti waktu Korea, berarti batik sudah ada sejak masa kerajaan Go ryu. Sudah lama sekali ya.

Sejak kemunculannya hingga saat ini, batik terus dilestarikan pemerintah dengan berbagai cara, misalnya dengan menetapkan hari Batik Nasional yang jatuh pada 2 Oktober setiap tahunnya juga mewajibkan Pegawai Negeri Sipil menggunakan batik setiap minggunya.

Upaya yang dilakukan pemerintah Indonesia sangat besar dan efektif. Hal itu membuat batik semakin dikenal luas dan terus dilestarikan masyarakat Indonesia dari generasi ke generasi.

Saya rasa, orang Korea perlu mencontoh upaya yang dilakukan pemerintah Indonesia ini, yaitu dengan ikut melestarikan hanbok, pakaian tradisional Korea. Dengan begitu, hanbok akan semakin dikenal masyarakat luas, baik warga Korea ataupun warga dunia.

Kembali lagi pada kesenian Indonesia, menurut saya, apa yang dilakukan orang Indonesia dalam melestarikan batik sudah sangat baik. Namun, saya kira, akan lebih baik lagi jika semua kesenian Indonesia yang tidak terhitung banyaknya itu juga dilestarikan seperti halnya batik. Indonesia bukan hanya batik, namun ada ulos, songket, dan beraneka hasil kesenian lainnya.

Melestarikan semua kesenian pasti akan terasa sulit, namun, kalau tidak sekarang dan bukan dilakukan bangsa Indonesia sendiri, siapa lagi?





[8 배은준]

Halo nama saya Eunjun. Saya lahir dan tinggal di Jakarta sampai sekarang, sudah kurang lebih 15 tahun. Saya berpendapat bahwa Jakarta adalah kota dengan dua wajah. Wajah pertama adalah Jakarta sebagai kota yang elegan dan mewah. Ada banyak hotel bintang lima, mal besar dan berkelas, kafe yang menawan dan restoran yang menyajikan makanan lezat. Saya kagum melihat mal besar dan gedung megah, termasuk mal Moi di Kelapa Gading, tempat saya tinggal.

Mal-mal di Jakarta menjual pakaian dan barang-barang dari seluruh dunia. Ukuran Mal bahkan lebih besar dibandingkan Mal di Korea. Selain itu, kita bisa membeli sayuran segar dan buah-buahan tropis di Mal. Ketika saya masuk ke toko yang menjual mainan mahal, itu sangat menggoda saya. Jika melihat Mal-mal besar dan gedung pencakar langit, sepertinya Jakarta adalah surga.



Namun, ada tempat-tempat kumuh dan jorok, terletak di tengah dan di pinggiran Jakarta. Inilah wajah Jakarta yang kedua. Saya pernah berkunjung ke tempat kumuh bersama Ibu saya. Di sana saya melihat anak-anak yang hidup miskin dan terlantar. Ada orang-orang yang tidur di kolong jembatan dan ada yang tinggal di gubuk yang terbuat dari papan kayu. Tempat tinggal mereka penuh bau busuk dan sangat kotor. Orang-orang miskin ini mencari makan dengan menggeledah tong sampah di pemukiman kaya. Mereka jarang mandi karena tidak punya kamar mandi sehingga rambut mereka kusut dan wajah mereka kotor. Saya sedih ketika memikirkan mereka yang tidak mempunyai rumah sementara saya bisa tinggal di rumah yang indah. Jadi, Jakarta adalah kota dengan dua wajah di mana kemewahan dan kemiskinan hidup berdampingan.

Hal ini membuat saya berpikir tentang bagaimana saya seharusnya hidup. Pertama, saya senantiasa bersyukur dan menghargai apapun yang saya miliki, seperti makanan yang lezat, tempat tidur yang baik, kamar untuk belajar, kamar mandi yang bersih dan toilet yang dapat saya gunakan setiap saat. Kedua, saya mau menahan diri untuk membeli mainan yang mahal. Saya bisa membeli mainan mahal sesuka hati, tetapi ada anak-anak miskin di bawah jembatan yang tidak bisa makan hari ini, kelaparan dan hidup menderita. Ketika saya memikirkan mereka, saya mengurungkan niat membeli mainan mahal. Belum ada yang bisa saya perbuat untuk membantu mereka, tetapi saya akan memikirkan anak-anak seperti itu. Ketiga, saya mau lebih rajin menabung, tidak berfoya-foya, dan memiliki empati kepada teman-teman miskin yang ingin sekolah.

Karena itu, saya ingin menjalani kehidupan yang berkenan di hadapan Tuhan dan berharga di mata orang-orang yang hidup di Jakarta. Kelak ketika saya dewasa, saya bertekad untuk membantu orang-orang miskin di kota Jakarta yang berwajah dua. Terima Kasih.



[10227 이예진]

Selamat sore semua! Saya Ye Jin Lee dari 10-2. Saya sangat bersyukur karena saat ini saya dapat memperkenalkan pahlawan atau role model saya. Anda pasti sudah pernah mendengar banyak hal tentang novel maupun film "Harry Potter", bukan? Namun tahukah Anda, siapa pengarangnya? Dia adalah J.K. Rowling. Dalam kesempatan ini, saya ingin memperkenalkan J.K. Rowling dan ingin sedikit saya jelaskan mengapa dia adalah seorang pahlawan bagi saya.

Beliau lahir pada tanggal 31 Juli 1965. J.K. Rowling menjadi sangat terkenal di seluruh dunia, setelah salah satu karyanya, yaitu Harry Potter menjadi novel terlaris. Dikatakan bahwa buku seri ini terjual sebanyak lebih dari 400 juta cetakan. Wow! Sungguh luar biasa! Setelah terkenal sebagai novel, akhirnya Harry Potter dibuat sebagai film yang fantastik, yaitu diperankan oleh para aktor film yang hebat seperti Daniel Radcliffe, Emma Watson dan Rupert Grint.

Akan tetapi, alasan saya menghormati dia adalah bukan karena dia seorang penulis yang sukses atau sebagai pengarang buku terlaris, tetapi karena semangat dan ketekunan dia terhadap mimpinya sendiri. Sebelum 'Harry Potter' menjadi laku, beliau sangat menderita karena berbagai tantangan hidup dan keadaan buruk. Saat ia baru berumur 25 tahun, ibu yang tercinta tiba-tiba meninggal dunia. Begitu pula setelah 13 bulan masa pernikahan berlangsung, ia dicerai dan ditinggalkan oleh suaminya. Kemudian karena begitu miskin, ia terpaksa tinggal di pusat kesejahteraan pemerintah. Bahkan karena tidak ada uang, ia kesulitan untuk membeli susu untuk anaknya, Jessica. Walaupun keadaan sungguh buruk, ia terus tekun menulis. Namun buku-buku yang ia tulis tidak pernah sukses. Bahkan buku pertama Harry Potter pun ditolak terus oleh penerbit sebanyak 12 kali. Karena keadaan yang tidak baik ini, dia pun sangat kecewa sampai ia sering tergoda untuk bunuh diri. Walaupun banyak hal yang membuat dia kecewa dan putus asa, namun ia tetap berjuang keras untuk mengejar mimpinya, yaitu menjadi seorang penulis hebat.

Kesuksesan dia menjadi indah dan berharga, karena semua itu tidak terjadi secara kebetulan, tetapi melalui hasil upaya dia yang pantang menyerah dengan mengatasi segala keadaan buruk, kegagalan, dan tantangan. Karena itu, secara pribadi saya sangat menghormati dia sebagai pahlawanku. Kalau saya sendiri, begitu mudah dan cepat untuk menyerah dan putus asa apabila saya mengalami kegagalan yang kecil maupun tantangan yang kelihatan sepele. Saya sering membandingkan diri saya dengan beliau. Pasti andaikata saya berada dalam keadaan J.K. Rowling, saya mungkin sudah pasrah karena depresi dan frustrasi. Kemudian segala cita-cita sebagai penulis, telah dibuang jauh-jauh setelah mengalami kegagalan. Akan Tetapi semangat dia yang pantang menyerah, keinginan dan tekad yang begitu gigih mampu mengatasi segala tantangannya. Saya pun sangat rindu dan mengharapakan semangat dan mental J.K. Rowling ini. Saya tahu dalam hidup saya pun dapat terjadi banyak hal yang membuat saya frustrasi dan kecewa. Namun saya ingin meneladani J.K. Rowling, dan mau bangkit dari segala keputusan. Saya tahu hal ini tidak mudah saya lakukan. Namun saya yakin, ketika saya mempunyai cita-cita dan semangat yang sungguh-sungguh dan gigih, saya pun dapat mengatasi segala keadaan yang buruk.



신문반 후기

11학년

기장 권혜준: 이번 직스레터가 제가 참여한 3번째 신문인데, 이번 신문은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과 친구들이 잘 따라와 주고 한혜진 선생님의 많은 도움 덕분에 신문을 무사히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지만 막상 완성 된 신문을 보면 뿌듯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재미있고 서로를 잘 이끌어주는 신문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기장 안세인: 이제 거의 3년 넘게 신문반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데 신문을 만들 때마다 한 신문을 끝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수고가 들어가는지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신문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번 학기의 많은 행사들을 신문반 학생들이 기사로 써왔는데 우리가 쓴 기사를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여겼으면 좋겠다. 다음 학기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고 싶다.

김한글: 신문 반 들어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 항상 다른 기사를 써보는 게 재미있고 갈수록 기사를 더욱 잘 써보고 싶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후배들과 같이 기사도 쓰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정말 좋았고, 이번에 한혜진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재미있는 신문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온 후배들이 신문 반에서 오래 남아서 더욱 더 좋은 신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진: 새로운 친구들, 후배들과 함께한 신문반 활동은 학교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보고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신문을 만들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완성된 신문을 보면 뿌듯할 것 같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앞으로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

김세원: 신문반 활동은 항상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글 쓰는 게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직스레터 기사들을 쓰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알게 되고 그렇게 후배들과 함께 기사에 힘을 쏟는 만큼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직스레터를 보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정말 의미 있는 동아리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신문반 활동인 만큼 더욱더 열의를 다하여 신문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홍은지: 한 학기 동안 새로운 후배들을 알아가고 함께 과제들을 해나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글을 쓰는 데에 어렵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지만 신문반 활동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익히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신문 하나를 만드는 데에 정말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번 직스레터 속에 노력을 기운 기사들을 보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마지막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유리: 신문반에서 직접 기사를 써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점을 차근차근 보완해 앞으로 더 나은, 더 다양한 기사를 써 보고 싶다.



10학년

이아림: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에 여러 기사를 썼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제 손으로 기사를 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기사다운 기사를 써보겠습니다!

한하은: 그 동안 신문반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힘들었던 부분도 선배님들, 후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양한 신문활동을 재미있게 했던 것 같고, 힘들었던 부분을 통해서도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뜻 깊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예슬: 처음 신문반 동아리에 들어와 여러 가지 신문 쓰는 법을 알게 되고, 인터뷰도 직접 해보면서 새롭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틀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게 되어 실력도 올라가 앞으로는 좀더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은: 매 학기 나오는 직스레터를 보며 제 글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해왔지만 신문반에 이번엔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관련 빠른 글을 써본적이 없었는데 한 학기간 다양한 글을 써오며 평소엔 관심 없던 주제들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잘 몰랐었던 학교 행사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하경: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신문반 동아리를 통해서 글 쓰는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글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반 동아리에서 내가 쓴 글이 학교 신문에 올라간다는 게 신기했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활동들 중에 너무 바빠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지만, 열심히 한 것이 막상 신문에 올라가면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변나영: 글 쓰는 쪽 관련된 과로 가고 싶었는데, 신문반에 들어와서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글을 쓸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글을 많이 써봐서 재미있었습니다. 직스레터를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부터는 뉴스나 직스레터를 볼 때 더 열심히 공감하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연: 평소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관심이 갖게 되었는데 신문반에 들어와 여러 가지 기사를 써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내가 쓴 기사가 직스레터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껴서 좋았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부족한 글쓰기 실력도 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9학년

성다연: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더 무겁고 진지하게 기사를 써서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 다음학기에는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요.

김세호: 글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에 흥미가 있었지만 막상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을 때 때마침 신문반에 들어오게 돼서 기뻐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조사하고 글을 쓰게 되어 좋았고, 부족한 점을 점차 채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더 다양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조희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동아리! 기사를 쓰면서 친구들, 선배와 소통하기도 하고 부족한 점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 부족한 점이 많아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무현: 평소에 짧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하여 신문반에 들어왔지만, 신문반에 들어와서 글을 쓰려고 하자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써본 글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저는 이 계기로 글 쓰는 것을 배워보자 하며 다짐을 하였습니다. 선후배가 함께 의논하며 글을 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라도 글을 읽을 때 흥미, 재미,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정민: 글을 쓰는 재미를 느끼면서도 신문을 작성하는 좋은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말로 된 글을 쓰는 데에 많이 서툴고 어색했던 저였기에 늘 감회가 새로워지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최선을 기우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학생기자 차정민이 되겠습니다!

민이원호: 기사를 쓰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글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것. 모두 신문반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민이원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